

AI 융합, XR의 진화

136조 시장선점 가속

(2026년)

AI가 그리는 초연결 미래

<下> 확장현실

AI(인공지능)의 발달이 가속화되면서 멀게만 느껴졌던 확장현실(XR) 시대의 서막이 올랐다. 현재는 엔터테인먼트나 게임 분야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지만 향후 제조, 국방 등까지 확장될 것이라 분석이다. 최근 국내기업들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XR 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신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앞서 애플이 MR 헤드셋 ‘비전 프로’를 선보인 가운데 삼성전자도 늦으면 내년 안으로 첫 XR 기기를 선보일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업계, XR 신시장 선점 속도
글로벌 기업과 손잡고 본격 추진

애플, MR헤드셋 ‘비전 프로’ 선보여
삼성, 내년 첫 XR 기기 출시 예고

특히 삼성의 XR 기기는 애플의 비전프로와 같은 ‘헤드셋’ 형태가 아닌 안경의 형태로 출시될 전망이다. LG전자도 메타와 협력해 만든 XR 기기를 내년 상용화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XR 생태계가 구축되기 시작했다.

19일 산업연구원(KIET)에 따르면, 글로벌 XR 시장은 2021년 약 25조 6000억원에서 오는 2026년에는 135조 9000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평균 39.7%의 높은 성장률이다.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MR(혼합현실) 등 실감 기술을 통칭하는 XR은 실제 세계와 가상 세계를 결합해 확장된 현실을 창조하는 기술을 뜻한다. 예를 들어 XR 기기를 착용하기만 하면 가상 동물의 촉감을 느낄 수 있거나 실제 위치한 공간이 아닌 전혀 다른 가상 공간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휴대 전화 등 다른 디스플레이 없이도 영상통화나 포털 검색을 할 수 있게된다. 공상과학(SF) 영화에서만 다뤘던 이야기가 실제로 구현되는 셈이다.



ChatGPT에 의해 생성된 ‘XR 기기 활용’ 이미지.

그간 XR 시장은 정체기를 맞았지만 최근 AI 기술이 고도화되며 현실화될 것이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최근 애플의 XR기기가인 ‘비전프로’가 출시된 데 이어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과 손잡고 XR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올해 초 마크 저커버그 글로벌 빅테크 메타(Meta)의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2박3일 동안 방한 일정을 소화하며 한국 기업들과 미래 사업에 대해 다양한 협업 가능성을 점검했다. 이에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메타와 함께 XR 기기 개발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이재용 회장은 저커버그와 만난 회동을 하면서 AI 반도체와 함께 XR 기기 개발을 위한 논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저커버그는 2022년 10월 미국 실리콘밸리의 삼성리서치아메리카를 찾아 한중희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 부문장(부회장)을 만났다. 당시 저커버그는 XR·VR 기기 개발, 제작 등에 대해 양사 간 협력을 점검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최근 갤럭시 S24 시리즈에 온디바이스 AI를 탑재하는 등 생성형 AI 시장을 개척 중인 만큼 메타와 AI 활용 비중을 높인 XR 기기를 개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삼성전자는 구글·퀄컴과 함께 XR 기기를 개발해 늦어도 내년 하반기 중 첫 XR 기기를 선보일 것으로 알려졌다.

<3면에 계속>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상출집단 TRS 악용 편법보증 막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총수익스와프>

공정위, 탈법행위 고시 제정 추진
계열사 간 부실화 방지 위한 규제

국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 소속 회사가 발행한 채무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총수익스와프(TRS) 등 파생상품을 계열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수해 실질적으로 채무보증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상출집단 적용 탈법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내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상출집단이 TRS 등 파생상품을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차단해 공정

거래법상 채무보증 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TRS(Total Return Swap)란 거래 당사자가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총수익과 일정한 약정이자를 일정 시점마다 교환하는 계약으로 파생상품 중 하나다. 공정거래법상 상출집단 소속 국내회사는 금융기관의 여신(대출, 회사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과 관련해 국내 계열회사에 하는 보증이 금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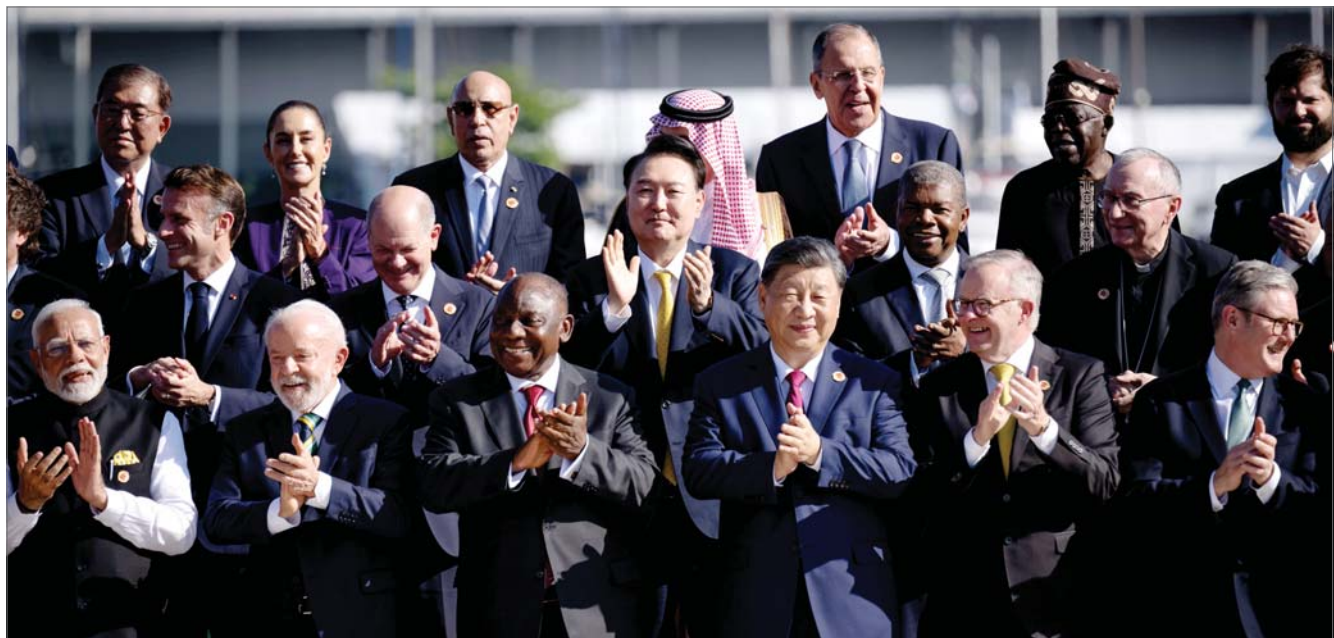
국내 계열회사들끼리 하는 채무보증을 금지하는 이유는 대기업집단 전체의 동반부실화, 대기업집단으로의 여신편중 등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일부 대기업집단이 TRS를 채무보증처럼 이용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편법적 채무보증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고시 제정안은 TRS 등 파생상품을 통한 실질적 채무보증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탈법행위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여러 기초자산 중 ▲채무증권 ▲신용연계증권 ▲파산 등에 따른 신용변동은 채무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어, 이들 3개 기초자산으로 설계된 파생상품을 적용 대상으로 설정했다. 반면, 자본적 성격이 뚜렷한 ▲지분증권 ▲수익증권 등의 기초자산으로 설계된 파생상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2면에 계속>

/세종=한용수 기자 hys@



尹 대통령, G20 정상들과 기념촬영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현대미술관에서 열린 19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기아·빈곤 퇴치 연합(GAHP) 출범’에 참여한 시진핑(맨 앞줄 왼쪽 네번째) 중국 국가주석, 의장국인 브라질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맨 앞줄 왼쪽 두번째) 대통령 등 G20 각국 정상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뉴스

연금개혁 ‘공회전’... ‘개혁 대신 폐지’ 주장도

22대 국회 첫 정기회의 내달 종료
연금폐지론 찬성 응답자 31% 달해

여·야가 22대 국회에서 우선 완수하기로 약속했던 연금개혁 논의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아직까지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연금개혁이 지체되면서 일각에선 젊은 세대가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국민연금을 차라리 폐지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6월 임기를 시작한 22대 국회의 첫 정기회의가 오는 12월 초 종료되지만 연금개혁 논

의를 위한 여·야 간 협의는 단 한 번도 진행되지 않았다. 여·야는 연금개혁 논의 창구인 협의체의 구성조차 마치지 못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5월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우선 논의해 연내에 개혁을 완수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간 정쟁으로 대립이 최고조여서 연금개혁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다.

‘연금보험료율 세대별 차등 인상’,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정부 개혁안을 놓고도 여·야 간 견해차가 커 연금개혁 논의가 성과를 거둘 개연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연금개혁이 지체되면서 일각에선 특정 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강요하는 국민연금을 개혁하는 대신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연금개혁청년행동이 지난달 18세 이상 국민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가운데 ‘1800조원의 국민연금 미인식부채는 국고로 천천히 해결하고, 국민연금은 차라리 폐지하자’라는 내용의 ‘연금폐지론’에 찬성한 응답자가 31.3%였다. 반대는 54%였다.

<3면에 계속>

/안승진 기자 asj1231@

메트로경제 ‘2024 뉴테크놀로지’ 포럼

오늘 오후 2시~5시,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國防차관, ‘아세안 확대 國防장관회의’ 참석... 북한군 러시아 파병 규탄
▲ 홍준표, 한동훈 겨냥 “계시판에 가족 동원 댔다면 대표자 처벌해야” /사진 뉴스

▲ TK에서 尹대통령 퇴진 촉구 이어져... 민주당 “들불로 번질 것”
▲ 민주 “감사원 사드 수사의뢰”에 “근거 없는 전정부 정치보복”



▲ 裨食봉사나선 한 총리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돼” 지적에 “더 잘하겠다” /사진 뉴스
▲ ‘尹퇴진 집회’ 연결된 수능 지문 도메인... “앞으로 사전구매 후 출제 검토”

尹, 러 대표단 면전서 “러-북 군사협력 즉각중단 강력촉구”

G20 정상회의 참석

러시아 외무장관 발언 직후尹 발언 이어 日·EU·캐나다·호주 대표도 러-우 전쟁, 러-북 군사협력 비판尹 “기아·빈곤 해결 힘 모아야” 호소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회의에서 러시아 대표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을 강력 비판했다. 또 글로벌 기아·빈곤 퇴치연합(GAAHP)에도 가입하며, G20 국가들이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을 도와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제1세션에 참석해 10번째 연사로 나섰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은 국제사회가 강압에 의한 현상변경 시도를 차단하고, 평화와 번영을 지켜낼 수 있는지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험대”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대규모 러시아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대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저는 러시아와 북한이 불법적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G20이 규범 기반 질서 수호를 위한 의지와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현대미술관에서 열린 19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제1세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행동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발언 순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대신 참석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발언 직후였다. 즉 윤 대통령은 러시아 대표단 면전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한 셈이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끝나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러시아를 향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비판적 발언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일본 정상은 ‘러시아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가’와 같이 묻는 형식으로 반어법을 통해 비판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

럽연합(EU) 집행위원장,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등도 러북 군사협력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 발언을 내놓았다.

정작 러시아에서 온 라브로프 장관은 자신의 발언 차례에 전쟁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개발도상국이나 기후변화 등에 대해서만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윤 대통령 바로 앞에 발언한 러시아 외교 장관은 전쟁 얘기는 쏙 빼고 세상 한가하고 편안한 얘기를 많이 했다”며 “기후 변화나 개발도상국 얘기를 하면서 일부러 피하지 않았나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많은 정상은 꽤 직설적으로 ‘식량 위기’, ‘에너지 위기’, ‘인도적 위기’, ‘전쟁의 새 국면’, ‘정당하지 못

한 전쟁’과 같은 용어와 예시를 쓰면서 북한과 러시아를 거론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때문에 오전에 시작한 제1세션은 이같은 격론에 더해 추가 초청국들의 발언이 겹치면서 예정된 시간을 두 시간 넘긴 오후에야 끝났다. 이어진 오후 제2세션에서도 독일, 일본 등 정상들이 러북 군사 협력에 대해 계속 지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제1세션에서 “대한민국은 개도국과 선진국을 잇는 ‘변영의 가교’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며 기아와 빈곤의 근본 해결책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으로, G20은 이들의 성장 동력 창출을 지원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올해 G20 정상회의의 주제는 ‘정의로운 세계와 지속 가능한 지구 구축’으로, 세션1에서는 ‘사회적 포용 및 기아·빈곤 퇴치’를 의제로 삼았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글로벌 식량위기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윤 대통령은 “개도국의 기아와 빈곤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G20 글로벌 기아·빈곤 퇴치 연합(GAAHP) 출범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한국의 GAAHP 가입을 선언했다.

또 “한국은 GAAHP 가입을 계기로 아프리카 식량 위기 대응을 위해 1000만 달러 규모의 신규 인도적 지원을 올해 안에 집행할 예정”이라며 “또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식량 원조 규모도 지난해 5만톤(t)에서 올해 10만톤으로 2배 확대한 데 이어, 내년에는 15만톤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아·빈곤 퇴치는 인도적 지원만으로는 어렵다면서,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했다. 이어 성장 견인책으로 ▲G20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성장동력 창출 지원 ▲개발도상국의 구조개혁 및 재정 혁신 ▲규범 기반 질서의 확고한 유지 등을 제시하면서 우리 정부의 개발도상국 성장 지원 노력과 향후 지원 계획을 설명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 1면 ‘상출집단 TRS…’서 계속

내년 집값 상승세 주춤… 지역별 양극화 더 심화

NH투자증권 “시장 정체 국면”
공급 부족한데 신축 선호현상
청약경쟁률 24.8대1 3년래 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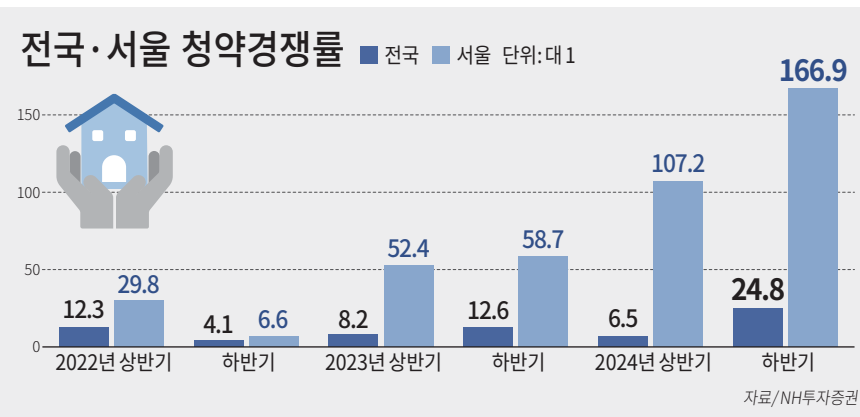
대출 규제로 집값 상승세가 주춤 가운데 내년 부동산 시장은 강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공급부족이 예고되면서 집값 상승과 하락 지역이 상존하는 차별화가 더 심해질 전망이다.

19일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격은 올해 4분기 3.3㎡당 전국 1617만원으로 전 고점 기준 91% 수준, 서울은 3828만원으로 98% 수준을 회복했다.

전세시장은 회복세가 더 빨랐다.

9월 기준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3.3㎡당 전국 949만원으로 전 고점과 비슷한 수준이며, 서울은 1864만원으로 이미 전 고점을 넘어섰다.

정보원 NH투자증권 택스(Tax)센



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올해 갈아타기 수요가 7월 정점을 찍으며 상급지와 정비사업장의 가격이 반등하고 신고가 거래가 증가했다”며 “격차는 지역 간은 물론 동일 지역 내에서도 나타나며 신·구축에 따라 차별화 장세가 심화됐다”고 진단했다.

특히 서울 내에서도 연초 대비 상승 폭이 가장 큰 곳은 서초구로 8.25%며 ▲성동구 8.22% ▲송파구 8.17% ▲용

산구 5.77% ▲마포구 5.74% 순이다.

부동산 시장이 정체 국면에 진입한 가운데 일시적 현상인지 추세적 흐름이 될지는 내년 1분기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기준금리는 내렸지만 대출규제는 강화됐고, 매도호가도 높아진 상황이다. 내년 부동산 시장은 상승과 하락지역이 상존하는 차별화·국지화 흐름이 더 가속되는 가운데 강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정 수석연구원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낮아지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도 커졌지만 전월세가격 상승과 금리인하 기대감, 선호 지역의 공급부족이라는 상승 요인이 하락 요인보다 우선 작용하며 국지적 상승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9월까지 누계 전국 인허가 물량은 약 19만1000호다. 2021~2023년 동기 인허가 물량을 밑돈다. 서울의 경우 약 2만2000호로 2022~2023년보다는 많지만 2021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공급은 부족한 반면 신축 선호 현상은 이어지면서 올 하반기 청약 경쟁률은 24.8대 1로 3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분양가 상한제로 큰 시세차익이 기대되면서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와 그 외 서울 지역의 경쟁률은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올해 들어 청약 경쟁률은 강남3구가 279대 1, 그 외 서울지역은 62대 1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특수목적법인도 거래당사자 포함

또 현재 상출집단이 TRS를 금융기관과 직접 거래하는 경우도 있지만, 금융기관이 특수목적법인을 중간에 두고 거래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이런 실태를 반영해 공정거래법에 따른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과 함께 특수목적법인도 거래당사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채무적 성격을 지닌 기초자산으로 설계된 파생상품을 금융기관 또는 특수목적법인과 거래하면서 실질적으로 채무보증 효과가 발생한 경우에만 탈법행위에 해당되도록 판단기준을 마련했고, 정상적 TRS 등 파생상품 거래가 위축되지 않도록 기준을 설계했다는 설명이다.

고시 제정안은 제도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채무보증 탈법 행위에 ‘해당하는’ 유형과 함께 ‘해당하지 않는’ 유형까지 열거했고, 각 유형별 구체적 예시도 제시했다. 또 시장 혼란 등 해소를 위해 제정일로부터 6개월 이후 상출집단이 새롭게 계약한 파생상품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을 뒀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전원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시 제정안이 시행되면, 상출집단이 TRS 등 파생상품을 채무보증 제한제도 우회수단으로 악용하는 탈법행위가 효과적으로 차단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업들의 예측가능성 역시 높아져 파생상품을 통한 채무보증 탈법 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가계빚 1914조… 전분기 보다 18조 늘었다

한은, 3분기 가계신용 통계
예금은행 대출 75% ‘주담대’

우리나라 가계빚이 지난 3분기(7~9월)에만 18조원 가까이 불었다. 주택매매가 늘며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한 영향이다. 이로 인해 예금은행 대출 중 75%는 주담대에 쏠렸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2024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를 보면, 지난 9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13조8000억원으로 2분기 대비 18조원 증가했다. 2021년 3분기(35조원) 이후 36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다.

가계신용은 우리나라 가계은행·보험사 등 금융기관에서 받은 가계대출에

결제 전 신용카드 사용액(판매신용)을 더한 지표로, 포괄적인 가계 빚을 의미한다. 가계가 금융기관에서 받은 가계대출 잔액은 1795조8000억원으로 전분기 말과 비교해 16조원 증가했다.

상품별로는 주담대 잔액이 1112조1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19조4000억원 늘었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수도권 주택매매 거래가 늘었다”며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주택 매매거래량은 올해 ▲1분기 5만9000호 ▲2분기 8만3000호 ▲3분기 9조6000호로 증가했다. 주택 매매 이후 약 1~2개월 시차를 두고 주담대를 받는 만큼 2분기와 3분기에 늘어난 주택 매매거래량이 주담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글로벌 에너지 수요 급증… 전력기기 3社, 수주잔고 17조 돌파

〈HD현대일렉트릭·효성중공업·LS일렉트릭〉

전력기기업체 대규모 일감 확보
변압기 공장 증설 등 경쟁력 강화
“시장 성장세 더욱 두드러질 것”

국내 전력기기 3사(HD현대일렉트릭·효성중공업·LS일렉트릭)가 3년 이상의 일감을 확보하며 호황기에 접어들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력기기 수요 사이클이 정점을 찍고 하락세로 접어드는 ‘피크아웃’ 우려를 제기했으나 시장은 여전히 수요 우위의 강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글로벌 전력기기 시장의 추가 성장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전력기기 3사의 기업 총 수주 잔고가 17조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와 유럽, 중동 지역들의 재생에너지 인프라 투자 확대와 전력망 현대화, 미국의 노후 전력기기 교체를 비롯해 AI 시장 성장에 따른 데이터센터 수요가 확대된 점이 주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HD현대일렉트릭 변압기 스마트 공장 외경

더욱이 AI 시장의 성장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전력기기 업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은 AI시장이 올해 449억달러(63조원)에서 2032년 5배 이상 증가한 2620억달러(369조원)까지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트럼프 당선인이 AI 행정명령을 폐지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빅테크 투자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이 팽배하다. 이를 통해 데이터센터 건립이 늘어나 시장 성장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트럼프 당선인의 영향으로 값싼 전력 공급에 대한 정부 방침이 확고해질 것으로 관측되며 스마트그리드 시장 또한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스마트그리드는 전력 소비자와 공급자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해 전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준다. 전력 생산자는 전력 사용 현황을 곧바로 확인해 전력 공급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소비자는 전기요금이 쌀 때 전기



효성중공업 미국 테네시 맴피스 초고압변압기 공장 전경.

를 쓸 수 있게 한다.

또한 트럼프 정부는 중국산 수입품에 6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강력한 대중 제재를 예고하며 국내 전력 업체들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감을 넉넉히 확보한 전력기기 업체들도 증가하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미국 현지 생산시설 확충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HD현대일렉트릭은 지난 7월 미국

앨라배마주 변압기 생산공장의 변압기 전문보관장(1만2690m2) 증설을 마쳤다. 이를 통해 회사는 변압기가 곧바로 보관장으로 옮겨져 조립라인 가동률을 끌어올리고 외부보관장 이용에 따른 운반·보관비 절감 효과 등 수익성 개선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효성중공업도 미국 내 생산기지 증설에 집중하고 있다. 효성중공업의 미국 법인 효성HICO는 지난 7월 실시간 유상증자에 670억원을 투입했다. 오는 2027년 증설이 완료되면 기존보다 변압기 생산능력이 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LS일렉트릭 또한 지난 2023년 7월 텍사스주 배스트롭에 생산시설 건설을 위한 부지를 매입해 현재 부지 기초작업을 진행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AI 기술과 에너지 전환 기조가 맞물리면서 전력기기 시장이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글로벌 정책 변화와 기술 발전에 맞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oul.co.kr

“번역, 더 정확하고 자연스럽게”… IT업계, 세계시장 공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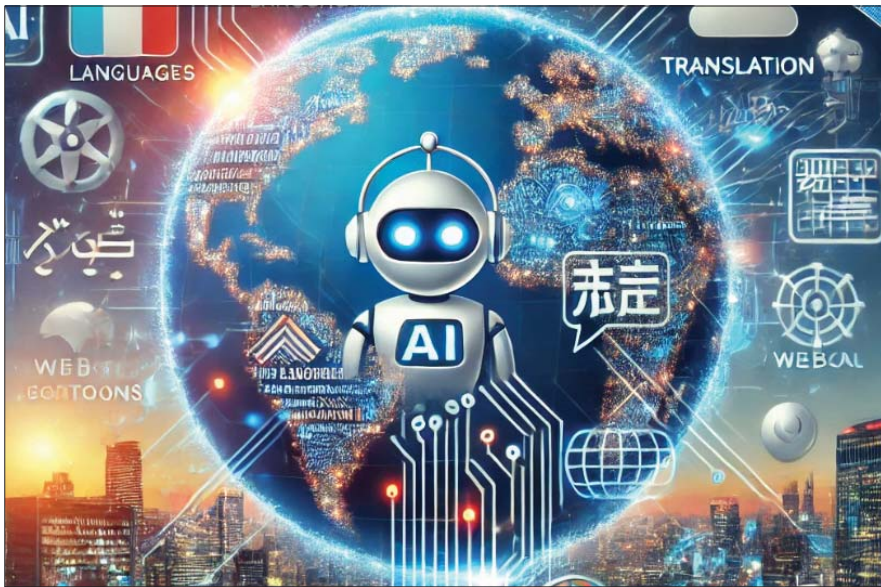
네카오 등 AI 번역기술 경쟁력 강화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지원 필요”

인공지능(AI) 기술발전으로 언어 장벽이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다. AI 기반 언어 번역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국내 정보기술(IT) 업계의 글로벌 시장 진출의 새로운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19일 〈메트로 경제〉 취재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대기업부터 플리토, 엑스엘에이트(XL8) 등 AI 번역 스타트업까지 다양한 IT 기업들이 AI 번역 기술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AI 번역은 AI 기술을 활용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텍스트나 음성을 자동 변환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단순히 단어를 치환하는 것을 넘어 문맥과 뉘앙스를 반영해 번역의 정확성과 자연스러움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네이버·카카오 등 한국 주요 IT 기업들은 이미 AI 번역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네이버는 AI 번역 서비스 ‘파파고’를 통해 시



‘AI 번역이 언어 장벽을 허물고 글로벌 콘텐츠를 연결하는 모습’을 담은 이미지. /Chat GPT

장 선두를 달리고 있다. 파파고는 16개 언어를 지원하며, 텍스트, 음성, 이미지 번역은 물론, 실시간·오프라인 번역 기능까지 제공한다. 특히 동남아와 일본 시장에서의 현지화 전략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며 지난 6월 기준 월간 활성 사용자수(MAU)는 약 842만 명으로 지난해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

카카오는 웹툰 현지화에 AI 번역 기술 활용을 검토 중이다. 카카오는 카카오프렌즈를 통해 웹툰과 웹소설의 해외 진출을 가속하기 위해 AI 번역 기술개발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 AI 스타트업들도 글로벌 AI 번역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플리토는 다국어 번역 데이터 플랫폼을 기

반으로 미국, 일본, 베트남, 중동 등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플리토의 AI 번역 엔진 ‘CT엔진’은 고유명사와 특수 용어를 사전에 학습해 맞춤형 번역을 제공, 정확도와 효율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엑스엘에이트(XL8)는 영상 번역 자동화 기술을 통해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과 협력 중이다. ‘미디어켓(MediaCAT)’은 영상 콘텐츠의 대사를 추출하고 번역 작업을 자동화하는 기술로, 현재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자막의 초벌 번역을 맡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AI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AI 번역 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AI 프로젝트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AI 번역 기술이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와 정책 지원이 뒷받침돼야 AI 번역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혜민 기자 hyem@

삼성·LG, 스마트 글라스 등 차세대 기기 상용화 예고

〉 1면 ‘AI 융합, XR의 진화’서 계속

새로운 스마트 글라스의 초기 생산 대수는 약 50만대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초기 제품 수요·성능 등을 보고 이후 생산량을 더 늘리거나, 아예 한정수량 제품으로만 선보일 가능성도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스마트 글라스의 제원을 살펴보면 퀄컴의 AR1 칩을 주 처리장치, NXP 칩을 보조처리장치로 사용하고 1200만 화소의 카메라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샘모바일 등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내년 3분기 즈음 XR 스마트 글라스를 출시할 전망이다. 이는 애플 MR 기기 비전프로나 메타 퀘스트 같은 ‘헤드셋’ 형태가 아니라 ‘안경(스마트 글라스)’의 형태가 유력시되고 있다.

애플의 비전프로는 이미 7개 애플 스토어를 통해 국내에 출시됐다. 비전프로는 구글 형태로, 디지털 콘텐츠와 실제 세계를 결합해주는 기기다. 애플 비전 프로 이용자는 앱을 보고 두 손가락을 맞대 탭하면서 앱과 상호작용한다.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사장) 또한 지난달 쉐클 스냅드래곤 테크 서밋에 참석해 “이제 XR 생태계에서 새로운 렌즈를 통해 AI(인공지능)의 이점을 확인할 때”라고 밝히며 AI 기능을 접목한 새로운 XR 품팩터의 등장을 예고했다.

LG전자는 메타와 협력한 XR 기기를 내년에 상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는 지난 2월 메타와 확장현실(XR) 사업 전략적 협업을 본격화한다. 오픈소스 거대언어모델(LLM) ‘라

마’를 확장현실(XR) 기기에서 활용하고, 웹OS 플랫폼을 메타 XR 기기와 연동함은 물론 콘텐츠 협력을 통해 미래 가상 공간 영역에서 고객 경험 혁신을 주도할 계획이다. 앞서 조주완 LG전자 사장과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는 이 같은 방안을 협의하고 XR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조사장은 “LG전자와 메타가 협업한 MR 기기의 구체 모습은 2025년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제품을 선보이기 위해 빠르게 출시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제대로 만드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 1면 ‘연금개혁 공회전…’서 계속

2030세대 불신 고조 절반 “폐지론 찬성”

전체 응답자 가운데 연금폐지 반대 응답이 더 많았지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많이 남은 20대·30대에서는 찬성이 더 많았다.

20대에서는 찬성이 47.5%로 반대(40%)보다 많았고, 30대도 찬성이 48.3%로 반대(45.6%)보다 많았다. 반면 70세 이상에서는 연금폐지론에 찬성하는 의견이 15.1%에 그쳤다.

고령화·저출산이 가속하면서 국민연금의 재정 소진 및 보장성 악화 전망이 나오는 만큼 젊은 세대 사이에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확산하고 있는 것.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혁 없이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할 경우 오는 2056년 연금기금이 소진되며, 2093년에는 총 누적 적자액이 2경1656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2093년에는 생산가능인구(만 18~64세) 1인이 1.5명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를 부양해야 하며, 하루마다 1500억원의 적자가 새롭게 발생한다.

손영광 바른청년연합대표는 “국민연금 고갈 전망은 70.9%의 응답자가 인지하고 있었지만, 1800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의 미적립부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6%만이 인지하고 있었다”며 “미적립부채를 인식한 응답자 가운데서는 재정안정이나 연금제도 폐지에 대해 찬성하는 비중이 특히 컸다”고 설명했다.

이어 “망해가는 상황(국민연금 재정이 악화하는 상황)에 더 나뉘 갖지는 의견(소득 보장을 강화하지는)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트럼프 2.0 시대… 반도체·자동차 中企, 美 진출 ‘좌초’ 우려

中企연구원, ‘中企 대응 방안’ 세미나
중견社투자계획 ‘차질’ 불가피 전망
업 연구위원 ‘품목·국가 다변화해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트럼프 2.0시대)가 시작하면 미국 시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 자동차 관련 중소기업의 잠재적 진출이 ‘좌초’될 것이란 우려다.

반도체는 미국이 반도체산업지원법(Chips Act)을 통한 지원을 폐지하거나 축소할 우려가 있어 삼성전자 및 현지 동반진출 협력 중견기업의 투자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자동차도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폐지·축소될 것으로 보여 현대자동차와 현지에 동반 진출한 중견기업 등 협력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거시적으로 트럼프 정부의 재정확대 기조로 인플레이션, 환율상승, 금리상승 등이 예상되는 만큼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 다만 미국의 신산업 규제로 미국내 창업이나 진출을 염두에 둔 테크서비스 관련 기업은 반사이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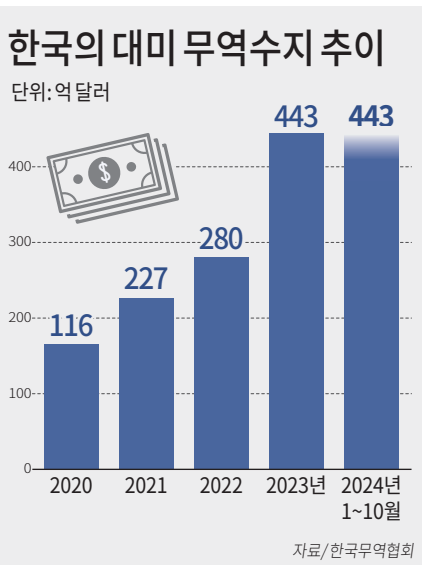
이같은내용은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임부영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19일 ‘美대선 결과에 따른 중소기업 대응 방안’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19일 서울 여의도 루나미엘레 파크뷰홀에서 연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중소기업 대응 방안’ 관련 세미나에서 나왔다.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중기연구원 임부영 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내외 정책은 1기보다 더 강경하고 파급 효과 등 통상환경에 변화가 큰 만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애로 및 의견수렴을 위한 ‘통상 협의제’를 구축해야한다”면서 “▲스타트업·벤처기업의 미 시장 진입 촉진 ▲수출기업 지원 확대 ▲수출 품목 및 국가 다변화 ▲온라인 수출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



조했다.

업 연구위원은 트럼프 2.0시대엔 중국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돼 국내 중소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국의 과잉생산 물량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시장으로 저가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중국과 협력관계가 큰 국내 중소기업들이 이를 재정비하는 데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판단이다.

업 연구위원은 “3대 주요산업 중 하나인 자동차 산업의 경우 정부가 중소기업간 미국 시장 동반진출을 지원하

나 자동차부품 AS시장 개척 지원, 미래차 부품 개발 지원 등의 정책을 펴야한다”면서 “반도체는 미국 수출 통제 동향을 주시하면서 수출지원센터, 관세사 등을 활용해 해당 품목에 대한 선별 컨설팅을 제공해 대중수출기업 리스크를 줄여나가야한다”고 조언했다.

‘미 대선에 따른 산업별 영향 및 대응 방안’이란 주제로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종덕 실장은 트럼프 2.0시대의 지원정책으로 ▲수혜 분야를 중심으로 기회요인 포착 및 개발 ▲대미 대기업 동반 진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 ▲대미 수출 플랫폼 역할을 하는 아세안(ASEAN) 및 멕시코 등 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도움 등을 꼽았다.

김종덕 실장은 “미국의 협력 요청을 받은 조선산업, 원자력 발전 및 소형 원자로, 인공지능(AI) 산업 성장 지원 확대 및 규제 완화는 우리에게 기회가 될 것”이라며 “미국이 관세정책을 실행하면 거대한 시장 및 풍부한 수요처, 법인세 인하와 같은 기회요인과 경쟁 심화, 인건비 등 생산비용 증가 등 위험요인이 공존하는 만큼 미국에 대기업과 동반 진출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방향을 잘 설정해야한다”고 강

조했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야한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조주현 중기연구원장은 “트럼프 당선자는 관세와 보조금, 에너지와 환경 등 분야에서 분명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미국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과 자국 중심주의도 강화될 것이다. 여기에 더해 미국의 중국 견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스라엘 중동 분쟁의 양상이 달라지면 전 세계의 경제와 무역환경이 영향 받을 것”이라며 “지혜를 모아 대응전략을 잘 마련하면 위기도 기회가 될 수 있다. 국가의 외교적·정책적 노력에 따라 기회가 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목소리도 많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발표 이후 이어진 종합토론에선 이병희 교수(한양대학교)가 좌장을 맡고 발제자 외에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조상현 원장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재민 본부장 ▲한국자동차부품협회 이근태 전복지회장 ▲KAPA정책연구소 이경진 소장 등이 참여, 미국 대선 결과가 국내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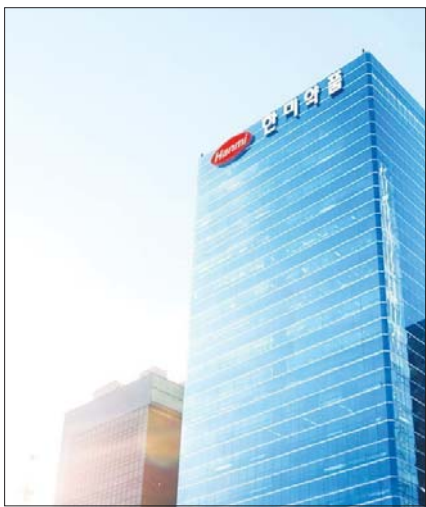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 격화… 의결권 자문사 ‘3자 연합’ 제안 반대

3자 연합, 이사회 구성 재편 시도
의결권 자문사 ‘논리 모순’ 지적
대주주 신뢰·기업가치 제고 방침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한미약품그룹 내 경영권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결권 자문사들이 한미약품그룹 대주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송영숙 한미약품 회장·임주현 한미약품 부회장 등 ‘3자 연합’의 주주 제안에 ‘반대’ 의견을 권고했다.

19일 한미약품그룹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에 따르면,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ISS가 3자 연합 측의 주주 제안에 반대하고 있다. 오는 28일 열리는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주총회의 주요 안건은 ▲정관 변경의 건 ▲기타비상무이사 신동국 선임의 건, 사내이사 임주현 선임의 건 등 이사 2인 선임의 건 ▲자본준비금 감액의 건 등 3건이다.

이 가운데, 3자 연합 측은 ‘정관 변경’과 ‘이사 2인 추가 선임’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관변경 안



한미약품 본사 전경.

/한미약품

건은 기존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정원을 10명에서 11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또 이사 추가 선임 안건을 통해 현재 공석으로 남아 있는 1인과 추가 1인 자리에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임주현 한미약품 부회장을 올린다. 3자 연합 측은 이 두 안건을 모두 통과시켜 한미사이언스 이사진을 6대 5 비율로 재편성한다는 전략이다.

다만, ISS는 “3자 연합이 현재 지배 구조에 문제가 있고, 사업 실적에 우려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왜 그렇다는 것인지에 대해 납득할만한 대답을 제공하지 못했다”며 “대주주인 3자연합 구성원을 신규 이사회 멤버로 선임해야 한다는 것도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소유와 경영 분리 논리와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ISS는 임종윤·종훈 형제 측이 제안한 ‘자본준비금 감액’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을 냈다. 해당 안건은 자본준비금 중 주식발행초과금에서 1000억원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내용이다. 안건 통과 시 차기 이후 배당가능이익이 늘어나게 되고, 이를 재원으로 추가적인 배당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한미사이언스 측은 “또 다른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글래스루이스도 ISS와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결론은 전문 경영을 주장하며 속으로는 경영권 장악을 도모했던 3자 연합의 속내를 정확히 꿰뚫어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미사이언스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경영권 분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미약품그룹의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 체제 및 관리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강경한 방침으로 그룹 전체를 점검해 기업 가치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18일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는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를 비롯해 김남규 라데팡스파트너스 대표 등 5인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 혐의는 배임,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이다.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한미사이언스의 손실 규모는 약 81억원에 이른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해당 금액은 고발장에 기재한 혐의 관련 금액을 단순 합산한 것으로 지난 2023년 기준 자기자본 대비 0.7%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한미약품은 “지주회사가 계열사 경영진 다수를 대상으로 집단 고발을 감행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임종윤·종훈 형제가 자신들의 정적을 제거하겠다는 목적으로 경

영권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약품은 “고발 사항에 대한 모든 항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할 수 있지만 언론을 통해 공방전으로 흐르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모든 사항에 대한 부당함은 법적 절차를 통해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미약품그룹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발인은 박○○ 한미약품 대표이사, 박○○ 한미약품 사내이사 등으로 이름은 비공개 처리됐다. 다만, 한미약품 이사회 구성을 고려하면 이는 각각 박재현 대표이사과 박명희 사내이사로 파악된다. 무엇보다 한미약품 이사회는 형제 측보다는 3자 연합 측에 유리한 구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3자 연합 측과 형제 측의 경영권 갈등이 잇단 고소·고발로 진흙탕 싸움이 되고 있는 가운데, 3자 연합은 사모펀드 운용사 라데팡스파트너스와 의결권 공동 행사에 합의했다.

/이창하 기자 mlee236@

3분기 국내은행 순이익 6.2조… 전분기 대비 1조 감소

금감원, 금융시장 리스크 대응 강화 방침
예대금리차 축소 영향, 이자이익 감소

올해 3분기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이 전분기 대비 1조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분기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은 전분기 대비 3000억원 감소했지만, 비이자이익은 800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집

계됐다. 금융감독원이 19일 ‘2024년 3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을 통해 올해 3분기 국내 은행의 당기순이익을 발표했다. 해당 기간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6조2000억원으로 전분기(7조2000억원) 대비 1조원(13.9%) 감소했다. 다만 올해 3분기까지의 누적 당기순이익은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전년동기(19조5000

억원)와 비교해 7000억원(3.4%) 감소에 그친 18조8000억원을 유지했다.

은행별로 보면, 시중은행은 3분기 당기순이익이 4조4000억원으로 전분기(3조8000억원) 대비 6000억원 증가했고, 지방(4000억원) 및 인터넷(2000억원) 은행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3분기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

(ROA)은 0.65%,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8.55%로 각각 전분기 대비 0.12%포인트(p), 1.83%p 하락했다. 1~3분기 누적기준으로 ROA 0.66%, ROE 8.81%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06%p, 0.95%p 둔화됐다. 항목별로 보면 올해 3분기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은 14조6000억원으로 전분기(14조9000억원) 대비 3.9%(3000억원) 감소했다. 금감원 측은 “이자수익자산이 0.8% 증가했지만 예대금리차가 줄어들면서

순이자마진이 큰 폭으로 축소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기별 이자이익은 예대금리차가 축소되면서 지난해 4분기 이후 감소 추세가 이어지는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순이자마진이 축소되는 가운데 대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잠재리스크에 충실히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정원 기자 zelkova@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친환경 세상을 위해, NH가 손을 보겠습니다

ESG 경영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 NH농협금융은 그 속도를 한 층 높이고 있습니다
전사적 친환경 활동은 물론, 친환경 기업에 투자·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 생태계 구축에 사회적 역할을 다합니다
농업·농촌 지역사회에서 상생의 이념으로 성장해 온 태생적 친환경 그룹인 NH농협금융은
이제, 아시아를 대표하는 친환경 금융그룹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NH농협금융

NH농협은행 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 NH투자증권 NH-Amundi자산운용 NH농협캐피탈 NH저축은행 NH농협리츠운용 NH벤처투자 NH농협카드

한동훈 “일자리·정년 문제 등 한국노총과 접점 찾아 대화”

국민의힘-한국노총 간담회

한국노총 “정부·여당 국정전환 시급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보호 등 제언”

韓 “근로자·국민 위해 복지국가 돼야
우상향 성장은 복지를 위한 도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찾아 노동계와의 대화를 강조하며 정년 연장과 기후 변화 정책에 직면한 노동자들의 일자리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좁혀나가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노동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집권여당 대표가 한국노총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 대표를 비롯해 김상훈 정책위의장, 임이자 노동전환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형동 한노위 간사, 김위상 노동위원회 위원장, 조지연 한노위의원, 우재준 한노위의원, 한지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을 방문해 간담회 전 김동명 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수석대변인이 참석했다. 한국노총에선 김동명 위원장, 서종수 상임부위원장, 강석운 상임부위원장, 박갑용 상임부위원장, 최응식 상임부위원장, 정연실 상임부위원장이 참석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간담회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전면적용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 ▲기후변화

에 대응한 노동 중심의 정의로운 산업 전환 ▲정년 연장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언하고, 국민의힘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노동자·서민의 삶을 챙기고 보살피는 것은 집권여당의 막중한 책임이자, 보수의 핵심 가치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삶

을 나아지게 만들고, 눈물을 닦아주며 함께 우는 집권여당의 모습을 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이 흐릿하다”며 “임기 절반을 경과하는 현시점에서 정부와 집권여당의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국정 전환, 노동자·서민과 함께하는 자세 변화가 없다면 더 많은 분노가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간담회를 통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보호를 포함한 핵심적인 4가지 정책의제를 제언한다”며 “하나의 의제가 보수·진보를 뛰어넘어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한 주춧돌인 만큼 집권 여당이 발을 벗고 나서 조속한 처리를 이끌어 달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과 한국노총이 ‘근로자 삶의 개선’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다며, 이 목표를 위해서 대화해 의견을 좁히면 합의점에 다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저는 근로자 모두, 국민 모두를 위해서 복지국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의 목표는 복지국가다. 우리가 보수 정당, 우파 정당으로서 우상향 성장을 이야기하지만, 성장은 복지를 위한 도구”

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노동 이슈를 경시한다는 오해와 편견을 받아왔다”면서 “그렇지 않다. 국민의힘은 진심으로 근로자의 힘이 되겠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집권하겠나”라고 반문했다.

한 대표는 “오늘 우리의 대화는 서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먼저 시작한다”며 “저희도 큰 틀에서 공감하는 것이고 차이가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줄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일하는 사람을 위한 법제를 갖추는 것, 기후변화에 노동자들이 직면하는 문제의 해결점을 찾는 문제, 정년의 문제 등에 대해서 집권여당과 노동자 대표인 한국노총이 접점을 찾아서 좋은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국민은 근로자 아닌가”라며 “근로자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보답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추진하는 데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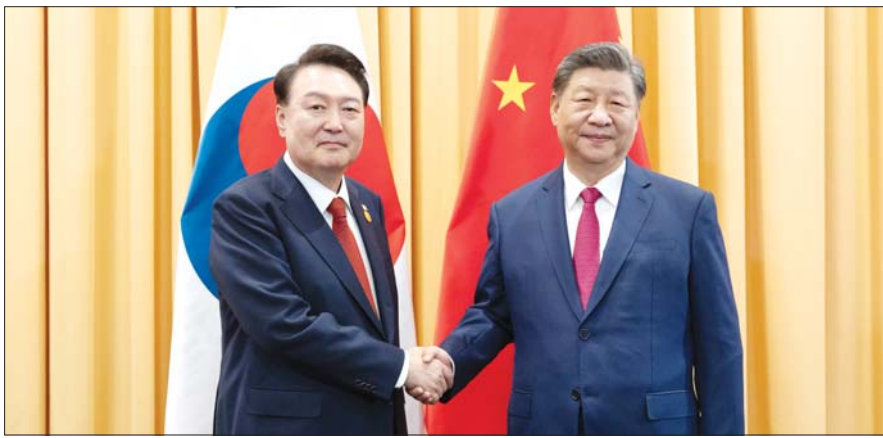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韓-中, ‘트럼프 2기’ 앞두고 소통 강화… 가치외교는 유지

트럼프 취임 후 美-中 갈등 심화 가능성
대통령실 “한중·한미 관계 무조건
갈등·충돌 방정식으로 이해할 게 아냐”

한국과 중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을 계기로 관계 개선에 들어갔다. 대통령실은 향후 구체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미중 갈등이 깊어질 경우, 관계 개선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1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해 고위급 협의와 소통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8일(이하 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브라질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중 관계 발전 전략에 대해 “고위급 협의와 소통을 이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페루 리마 한 호텔에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계기 한-중 정상회담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한중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여러 가지 악재로 관계가 악화됐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도 한중은 각급 소통은 지속해왔고, 올해 5월 한일중 정상회의를 4년 반만에 복원시키기도 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2년 만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한중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시 주석에게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건설적 역할을 부탁했고, 시 주석도 “역내 정세 완화를 희망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원치 않는다”라고 화답했다.

또 시 주석도 회담 모두발언에서 “지

난 2년동안 국제 및 지역 정세가 많이 변했고, 중한 관계가 전반적으로 발전의 모멘텀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한중 관계 개선 흐름을 긍정적으로 본 셈이다. 시 주석은 2025년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찾을 전망이다.

게다가 윤 대통령은 브라질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있어 (미국·중국) 양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때문에 일각에서는 한미동맹 중심의 ‘가치 외교’가 ‘실리외교’로 전환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같은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우리 정부의 외교가 ‘이념 외교에서 실용 외교로 바뀌었느냐’는 질문은 맞지 않다.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의 전략은 한 번도 바뀐

적 없다”며 “한미동맹을 통해 전쟁을 막아왔고, 최대의 통상 파트너인 중국과도 충분히 투자하고, 협력하고, 기업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 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식으로 취임하면, 미·중 갈등이 깊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한국은 미국과 중국 중 한쪽을 택하라는 압박을 받을 수 있으며, 한중 관계 개선 분위기도 사그라들 수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양국이 공감대를 이룬 것은 한중 관계, 한미 관계를 무조건 (상호) 갈등과 충돌의 방정식으로 이해할 게 아니라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간 어떤 협력 있을 때 그것이 한국 기업에 이익이 되고 또 우리 입장에서 한중 관계에도 함께 도움이 되면 좋기 때문에 그런 접점을 찾아가도록 한중 소통, 한미 소통을 긴밀하게 하겠다는 게 우리의 의사”라며 “이에 대해서 중국도 심분 이해하는 거 같다”고 부연했다.

/서예진 기자 syj@

‘사면초가’ 李, 위증교사 재판에 법카 사적유용 기소까지

국민의힘 “野 방탄 굴레 벗어나야”
민주당 “檢 칼날, 野 대표에게만 향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린 가운데, 검찰의 ‘범인카드 사적유용’ 의혹 불구속 기소와 내주 예정된 위증교사 재판 1심 선고까지 ‘사면초가’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검찰은 19일 이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 식사 대금을 지출



하는 등 1억653만원 배임 의혹이 있다고 봤다.

또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 이었던 정모 씨와 경기도 공무원이었던 배모 씨도 공범으로 기소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추가 기소로 당무수행 및 정치적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여당은 검찰의 추가 기소에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을 요청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에 드러난 혐의사실은 이 대표가 공직자로서 기본조차 갖춰지지 않았음을 선명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 대표 재판으로 인한 사회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단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취재진들에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야당 대표가 죽을 때까지 수사하고 기소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그 검찰의 예

리한 칼날이 왜 야당 대표에게만 향하는가”라고 비판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많은 의혹에 대해 검찰은 꼬리 자르기에만 급급하고 있지 않나”라며 “정치검찰 만행에 대해 다시 한번 규탄한다”고 밝혔다.

오는 25일 있을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 1심 선고 역시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고(故) 김병관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사실 공표 재판에서 자신에 유리하게 위증해달라고 부탁했다는 혐의로 지난

해 10월 기소했다.

정치권에서도 위증교사 사건 재판의 형량이 더 무거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위증교사 의혹은 위증한 사람이 이미 다 인정을 하고, 녹취록에 의해서도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한 증거가 나오고 있다”면서 “그래서 이것도 유죄를 피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3년 구형했는데 저는 1년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예측했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도 KBS라디오에 출연해 “(당 내부에서) 둘 다 무죄를 확신하는데 위증교사보다 공직선거법의 무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보는 분위기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박태홍 기자

| 우리의 걸음이 길이 되도록



원팀으로 AI시대를 여는 FIRST MOVER

We Do Technology | SK hynix

빗썸, 신뢰 바탕 IPO 도전... “투명성·투자자 보호 강화”

내년 하반기 국내증시 입성 목표 수익 극대화 보다 거래역량 집중 상장 통해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생활 밀착 제휴로 점유율 확대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차별화된 행보를 통해 증시 입성에 도전한다. 당장의 수익 극대화보다는 가상자산 거래역량에 집중할 방침이다. 빗썸은 특히 거래 투명성 강화, 고객서비스 확대, 투자자보호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 투자자 신뢰제고 총력

빗썸은 내년 하반기 가상자산거래소 첫 국내증시 입성이란 목표를 갖고 있다. 최근 수수료무료, 서비스개편, 공격적 마케팅 등의 행보가 결국 신뢰를 높이는 밑거름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빗썸은 증시 상장이 체급을 키우는 것이 아닌 상장을 통해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빗썸은 지난해 9월 말 삼성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하고 기업공개(IPO) 작업에 착수했다. 상장 목표 시점은 2025년 하반기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계획 중이다. 앞서 빗썸은 지난 2020년에도 IPO를 추진했지만 가상



지난 7월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가운데)와 직원 대표가 함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서약식’ 선언을 하고 있다. /빗썸

자산이 제도권으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빗썸은 IPO를 통해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내부통제 운영을 대외적으로 검증 받아 투자자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빗썸이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면 한국거래소(KRX)는 영업의 지속성, 경영 투명성, 경영 안정성, 내부통제 관리 등의 심사를 하게 된다.

즉, 빗썸의 대주주 리스크(경영 투명성), 복잡한 지배구조(경영 안정성)와 영업 및 재무상황(기업의 계속성)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면서 투자자들의 신뢰

가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빗썸은 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규제 준수를 넘어, 투자자 보호 활동을 통해 기업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빗썸은 지난 7월 1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서약식’을 개최하고, ‘이용자 보호법’ 준수 5대 행동지침으로 ▲이용자 자산 보호와 신뢰 우선 ▲업무 기밀 유지와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시세 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 방지 및 신고 ▲법률 및 규정의 적극 준수 ▲이용자 이익 우선 및 책임과 투명성을 지킬 것을 선언했다.

또한 회사내 ▲투자자보호위원회 ▲내부통제위원회 ▲자금세탁위험관리위원회 ▲거래지원심의위원회에 ▲시장감시위원회 등 총 5개 위원회 체계를 갖춘 상태다. 각 위원회는 투자자 보호 활동 강화, 금융기관 수준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 심도 있는 거래지원 검토 등 다방면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거래에 집중하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19일 “가상자산 사기 예방 종합 상담센터와 거래지원 및 가상자산 사기 관련 신고 채널을 운영하며,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 도입을 통해 임직원 불공정거래 예방과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는 가상자산거래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 고객 니즈 충족 서비스·마케팅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지난해 보다 높아지면서 빗썸은 산업군과의 활발한 제휴 마케팅을 통해 점유율을 높이고, 소비자들에게 가상자산의 부정적인 이미지도 바꾸고 있다.

빗썸은 국내 대형 가상자산거래소가운데 처음으로 식음료(F&B) 업체들과 생활 밀착형 제휴를 진행했다.

먼저 지난 5월 이마트 24와 협업해 ‘비트코인 도시락’을 출시했다. 출시 후 고객들에게 엄청난 관심을 받았고 판매 초기 3주 동안 준비된 3만개가 완판됐다. 이후 CU, 투썸플레이스, 던킨도너츠, 푸레쥬르와 제휴를 통해 비트코인 증정 이벤트를 열었고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최근에는 다시 이마트24협어해 선보인 ‘이더리움 스테이킹 도시락’이 출시 12일 만에 완판되면서 ‘비트코인 도시락’에 이은 두 번째 완판 달성했다.

빗썸은 공격적인 서비스와 마케팅으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9월 빗썸의 점유율은 23%를 기록했지만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시작한 10월에는 35%를 기록했다. 또한 미국 대통령선거가 치러진 지난 5~6일에는 점유율 40%를 돌파하면서 공격적 마케팅의 성과가 나타났다.

빗썸 관계자는 “최적의 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업계 최저 수수료, 멀티체인 지원, 입출금 UI 개편 등 서비스를 다각도로 개선하고 있다”며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기능과 이벤트 역시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조병규 우리은행장, 사실상 연임 불가능

우리금융·은행 압수수색 이틀째 조 은행장, 영장에 피의자로 명시

조병규 우리은행장의(사진) 연임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병규 우리은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면서 현 경영진까지 수사 대상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 있는 우리금융지주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은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 사무실, 우리은행 본점 대출 관련 부서 등이다.

검찰은 조병규 은행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이 부당대출이 이뤄진 과정을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제대로 즉시 보고하지 않은 부분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조 행장이 피의자로 명시됐다. 은행장 취임 이후 불법적



대출이 자행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혐의다.

검찰은 이미 지난 8월 27일 우리은행 본점 등을 한 차례 압수수색했지만, 우리금융지주 사무실까지 수색 대상에 포함한 것은 전날이 처음이다. 이에 더해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까지로 예정됐던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에 대한 정기 검사 기간을 일주일 연장했다. 내년에 정기 검사에 착수하려던 일정을 올해로 앞당긴 데 이어 기간까지 연장하면서 고강도 검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과 금감원의 쌍끌이 압박에 조병규 행장의 연임 가능성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20개 은행장 간담회에 앞서 “연임할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조 행장은 “저는 모르죠”라고 답변했다. 연임에 대한 의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이란 의견이 지

배적이었다.

하지만 조 행장 연임 여부를 놓고 고심했던 이사회도 이번을 피의자 신분 전환을 계기로 새로운 은행장을 선임하는 쪽으로 기울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지주는 최근 자회사대표이사 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를 비공개로 열고 차기 행장 후보 선임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리스트(1차 후보군)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은행장 승계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 행장의 연임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조 행장 임기 만료 1개월 전인 오는 30일까지 차기 행장 후보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쏠리스트(최종 후보군) 작업에 돌입해 오는 22일 정기 이사회에서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피의자로 전환된 상황에서 연임을 강행한다는 것은 회사 차원에서도 도박”이라며 “이번주 정기이사회에서 쏠리스트를 공개해 남은 2주 동안 면접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아크로 베스티뉴’ 단지 투시도.

/DL이앤씨

안양 ‘아크로 베스티뉴’ 특공 경쟁률 2대 1

경기관 최초 아크로 브랜드 적용 전용 84㎡ 최고가 기준 15.7억

경기도에서 서울 주요 지역보다 높은 분양가로 이목을 끌었던 ‘아크로 베스티뉴’의 특별공급 경쟁률이 2대 1을 웃돌았다. ‘국민평형’인 전용면적 84㎡의 분양가가 15억원을 넘어서면서 후보양에 역세권, 하이엔드 브랜드가 적용됐다고는 하지만 안양에서는 역대 최고 분양가다.

1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에 들어서는 ‘아크로 베스티뉴’의 특별공급 청약 경쟁률은 평균 2.4대로 집계됐다. 179세대 모집에 총 429명이 접수했다. 주택형별로는 59㎡에 청약이 많이 몰렸다.

아크로 베스티뉴는 안양 호계온천재 개발사업이다. 지상 37층, 10개 동으로 총 1011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391가구다. 면적별로는 ▲39㎡ 10가구 ▲59㎡A 286가구 ▲59㎡B 33가구 ▲74㎡B 21가구 ▲84㎡ 41가구다.

단지는 롯데백화점과 뉴코아아울렛을 지하로 연결한 범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 입지다. 평촌 학

원가를 이용하기도 편리하다. 이와 함께 DL이앤씨의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인 아크로가 경기도 최초로 적용됐다.

분양가는 예상보다 높다는 분위기다. 전용 84㎡가 최고가 기준 15억7440만원이다. 59㎡도 10억8950만원으로 10억원을 넘어섰고, 74㎡는 14억290만원이다.

아크로 베스티뉴가 들어서는 호계동에서는 신축도 84㎡가 최고 11억원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다.

올해 입주한 ‘평촌트리디아’가 올해 8월 11억5000만원에 거래됐고, 2023년 입주한 ‘평촌센텀퍼스트’가 11억3000만원에 실거래를 신고했다. 2021년 입주한 ‘평촌버비퍼스트’는 최고가가 10억5000만원이다.

분양 관계자는 “프레스티어자의 경우 분양가가 3.3㎡당 6275만원으로 과천 역대 최고가였지만 수요자들이 대거 몰렸다”며 “아크로 베스티뉴는 빠른 입주도 가능해 상급지 새 아파트로 갈아타려는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19일 1순위, 20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입주는 오는 2025년 3월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신한은행, 소상공인·中소지원 확대 나서

신한은행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신한은행과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노란우산공제 가입 고객 대상 예금 및 대출 금리지원 ▲저출생 극복을 위한 여성 소상공인 출신

지원금 지급 ▲청년 구직자 일자리 매칭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력 등 다양한 ESG·상생금융 사업들에 대해 상호 협업한다.

현재 신한은행은 미래경영진 육성 프로그램에 선발된 본부장급 직원을 중소기업중앙회에 파견해 소상공인과 중소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보고 들으면서 현장에 꼭 필요한 금융정책 및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양사는 우선 노란우산공제 가입 소상공인 대상 우대금리 금융상품 및 보증서대출신상품을 개발하고, 중소기업중앙회 회원기업에게 ESG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중소기업 현장의 소리를 반영한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美 화석연료 산업 규제완화 전망 정유업계, 업황회복 기대감 고조

트럼프, 화석연료 활성화 강조
수요 증가에 정제마진 개선 가능성
업계, 유가 하락 등 불확실성 주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재 집권 확정으로 국내 정유업계의 수익 성 개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일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전통적인 에너지 자원의 회귀를 강조해 온 만큼, 미국 내 수요 증가에 따른 업황이 회복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업계는 불확실성을 고려하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모양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정유사들이 3분기 나란히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다. SK이노베이션은 3분기 영업기준 영업손실 42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적자전환했다. 특히 석유사업 부문에서 616억원의 적자를 냈다. 에쓰오일은 영업손실 4149억원으로 적자전환했으며 HD현대오일뱅크와 GS칼텍스 또한 각각 2681억원, 3529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실적 부진의 원인으로는 국제유가 하락과 정제마진 감소가 지목된다. 특히 국제유가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

감으로 3분기 소폭 상승했으나 이후 중국의 원유 수요 감소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되며 크게 하락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유업계는 트럼프 당선인의 향후 행보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 2기 집권으로 미국 내 석유 등 전통적 에너지와 화석연료 기반 산업에 대한 규제가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바이든 행정부의 배출가스 규제 강화, 전기차 전환 촉진 등 친환경 정책은 휘발유, 경유 등 운송용 수요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후보자 시절 “드릴 베이비 드릴(Drill, baby drill, 석유를 시추하자)” 슬로건을 외치며 석유를 비롯한 전통 화석연료 활성화를 강조한 바 있다. 석탄, 석유, 셰일가스 등의 화석연료 개발 및 생산을 확대하겠다는 기조다.

이에 석유 산업 지원 정책 강화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원유 생산량 확대로 인해 유가 하락이 단기적인 수익 감소를 초래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수요를 늘리고 정제마진을 높여 지속적인

이익을 안겨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현재 중동산 원유 위주로 수입 중인 국내 정유사들이 가격이 낮아지면 미국산 원유 수입을 늘려 실적 개선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트럼프 집권에 따른 유가 하락이 정유사들의 영업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유가가 급격하게 하락할 경우 큰 폭의 재고 관련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아울러 정유업계는 4분기 실적 개선을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중국이 정부 차원의 경기 부양책을 본격 가동하고 동절기 난방유 및 항공유 등의 수요 증가와 미국의 경제성장 지속이 세계적인 수요 확대를 이끌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트럼프의 재집권이 장기적으로 수요 증가와 정제마진 개선을 통한 시장 경쟁력 강화의 기회가 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다만 단기적으로는 유가 하락이 재고 손실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4년형 LG 올레드 예보’.

/LG전자

LG 올레드 TV, 美·英 등 ‘최고의 TV’ 찬사

글로벌 주요 매체서 최상위 평가

LG전자는 자사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TV가 영국, 미국 유력 매체들이 선정하는 ‘올해 최고 TV’에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2024년형 LG 올레드 예보(모델명 G4)는 최근 영국 매체 테스트가 진행한 ‘TV 대결’에서 ‘올해 최고의 TV’로 뽑혔다. 전문가 평가단이 TV 화질을 블라인드 테스트한 결과 G4는 색 정확도, 고명암비(HDR) 성능, 업스케일링 성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종합 1위에 올랐다.

LG 올레드 예보(모델명 C4)는 영국 매체 왓하이파이 선정 ‘올해 최고의 40

~50형 TV’에도 이름을 올렸다. 매체는 “뛰어난 화질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능을 갖췄다”고 호평했다.

미국 매체 디지털 트렌드는 ‘올해 최고 OLED TV 6선’에 G4와 C4를 각각 1위와 2위로 선정했고, 하우투기는 C4를 ‘올해 최고의 OLED TV’로 뽑았다.

C4는 미국 매체 톱스가이드로부터 ‘올해 최고의 50형 TV’와 ‘올해 최고의 43형 TV’에도 각각 선정됐다.

정재철 LG전자 HE연구소장은 “더 강력해진 인공지능(AI) 프로세서와 업계를 선도하는 올레드 기술력을 기반으로 전 세계 고객들에게 차원이 다른 시청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정부, 이차전지 소재 산업 활성화 나선다

강인선 차관, 포스코퓨처엠공장 방문
“정부가 가동률 회복 적극 지원할 것”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이 포스코퓨처엠 세종 음극재 공장을 찾아 “정부가 가동률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19일 포스코퓨처엠에 따르면 강 차관은 지난 18일 포스코퓨처엠 공장을 방문했다. 대선을 마친 미국 정부의 향후 배터리 산업 공급망 관련정책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이차전지 핵심소재인 음극재 공급망 구축 현황을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한다는 취지다.

강 차관은 “전연흑연 및 음극재는 주요 핵심광물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대외 의존도로 인해 공급망 다변화가 절실한 품목”이라며 “가동률 하락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포스코퓨처엠과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이 지난 18일 포스코퓨처엠 세종 음극재 공장을 찾았다. 강인선 차관(사진 왼쪽)이 포스코퓨처엠 관계자로부터 이차전지 핵심소재인 음극재 제조 공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포스코퓨처엠

같은 우리기업이 가동률 회복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유일의 흑연계 음극재 생산기업인 포스코퓨처엠은 생산량 기준으로 중국을 제외하면 유일한 세계 10위권에 있으나, 최근에는 저가 공세를 펴고 있는 중국 기업들에 밀려 가동률이 급락해 10위권도 위태롭다.

이에 따라 국내 음극재 국산화는 물론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서는 포스코퓨처엠 음극재사업의 지속적인 유지·발전이 필수적이며, 우리 정부는 물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음극재의 글로벌 공급망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외교부는 향후 MSP 활동 등을 통해 음극재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글로벌 협력방안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차현정 기자

동국씨엠, ‘리-본 그린 컬러강판’ ECV 인증

컬러강판제품 친환경성 입증

동국제강그룹 동국씨엠이 컬러강판 제품의 친환경성을 인정받았다.

동국씨엠은 삼화페인트와 공동으로 미국 안전규격 인증기관 UL 솔루션으로부터 ‘리-본 그린 컬러강판’(Recycling Born Green Pre-Coated Metal)에 대한 환경성 주장 검증(ECV, Environmental Claim Validation)인증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ECV 인증은 ▲재활용·재사용 소재 사용율 ▲유해 물질 함유율 등 제품 친환경성 주장에 대해 제 3자 검증 프로그램을 통해 타당성을 입증해 부여하는 인증 마크다. 재생 소재 함유율에

대한 공정 심사 및 전문 엔지니어 검증 등을 거치는 까다로운 인증으로 분류된다.

동국씨엠은 이번 인증 취득으로 컬러강판 제품 친환경성이 검증됨에 따라 보호 무역 확산 등 철강 통상 환경 변화 속 수출 시장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국씨엠 남돈우 연구소장은 “탄소 배출 저감형 제품 수요 선제 대응을 위해 전기로 소재를 사용하거나 생분해 필름을 쓰는 등 친환경성 향상에 힘쓰고 있다”며 “DK컬러 비전 2030에 따라 컬러강판 제품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차현정 기자

현대차, 공식 온라인몰 ‘현대샵’ 리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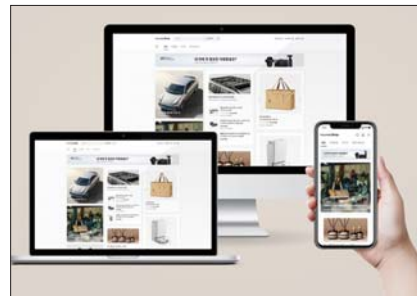
UX·UI 등 디자인 개선… 편의성 강화

현대자동차가 공식 온라인 쇼핑몰 ‘현대샵’을 새롭게 선보였다.

19일 현대차에 따르면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현대샵은 ▲자동차 액세서리 ▲세차용품 ▲차박(차에서 하는 숙박)을 위한 캠핑용품 등 자동차 애프터마켓 전용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쇼핑몰이다.

현대차는 이번 리뉴얼에서 고객이 손쉽게 제품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 기능을 추가해 애프터마켓에 대한 고객 경험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현대차는 사용자 경험(UX)과 사용자 환경(UI) 등 홈페이지 디



현대차 공식 온라인 쇼핑몰 ‘현대샵’

자인을 개선해 소비자들이 다양한 콘텐츠와 맞춤 상품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대차는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비자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상품을 자동으로 추천해 고객의 편리한 쇼핑을 지원한다.

/양성운 기자 ysw@

SK이터닉스, 1945억 규모 태양광 발전전력 공급

국내 대기업계열사와 직접PPA

SK이터닉스(SK Eternix)가 친환경 에너지 종합 플랫폼 기업으로 사업 영역을 지속 확장해 나가고 있다.

SK이터닉스는 국내 대기업 계열사인 RE100 이행 기업 중 한 곳과 40MW(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직접전력거래계약(이하 직접PPA)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SK이터닉스는 2055년까지 30년 간 RE100 이행 기업에 40MW, 총 1945억원 규모의 태양광 발전전력을 공급하기로 했다.

직접PPA는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직접 전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RE100 가입 기업으로서는 재생에너지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뿐 아니라, 공급받은 전력량에 상응하는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어 선호도가 높다.

김해중 SK이터닉스 대표는 “당사는 국내 전력중개 시장의 개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자원을 꾸준히 확보해왔으며, 이번 직접PPA 체결은 전력중개 사업의 교두보로써 큰 의미가 있다”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탄소중립 및 국가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불황에도 SUV 인기 지속... 스포티지·투싼 등 판매 상승세

완성차업계, 시장변화 맞춤 전략

스포티지, 스마트 기술로 시장 반격
조용한 주행위한 회생제동·소음 개선
투싼, 인기 트림·옵션 패키지 신설
고객 선호사항 기본화로 상품성 강화

국내 준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시장을 두고 완성차 업계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글로벌 경기불황 장기화에 따른 내수 시장 침체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국내 자동차 시장이 상반된 분위기를 보이면서 완성차 업계도 시장 흐름에 맞춘 전략을 내놓고 있다. 과거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 경차가 잘 팔린다

는 공식도 점차 깨지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준중형 SUV 시장 라이벌인 기아 스포티지와 현대차 투싼이 각각 부분변경과 연식변경을 통해 상품성을 한층 강화했다. 기아 스포티지가 부분변경 모델 출시를 앞두고 투싼에 다소 밀렸지만 신차 출시로 분위기 반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올해 현대차·기아의 1~10월 국내 전체 판매량(109만642대)의 약 10%가 스포티지와 투싼이 차지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투싼은 16%, 스포티지



현대차 2025 투싼 전면.

는 6%가량 판매량이 늘었다.

국내 준중형 SUV 시장 공략을 위해 기아가 3년여 만에 출시한 신형 스포티지는 실내외 디자인을 완전변경 수준으로 바꿨다.

앞쪽 중간주행등을 수직 형상으로 하고 그릴은 검은색 수평형 패턴으로 깔끔한 인상을 준다. 휠 디자인과 뒷쪽 램프·범퍼 디자인도 손봤다. 송풍구를 수평으로 디자인해 실내를 넓어 보이게 했고 D컷 스티어링휠을 적용했다.

1.6 가솔린 터보 모델에 8단 자동변속기를 적용했고 1.6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은 모터 출력을 개선했다. 도로 상황 등에 따라 회생제동 단계를 자동으

로 제어하는 스마트 회생제동 시스템을 적용했다. 램프·흡차음재를 보강해 조용해졌다. 운전자 전방 주시 경고 카메라,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새로 적용했다. 판매가는 ▲1.6터보 가솔린 2836만원부터 ▲2.0 LPi 모델은 2901만원부터 시작한다. 1.6터보 하이브리드는 3315만원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는 투싼 연식변경 모델로 경쟁에 나선다. 2025 투싼은 트림별로 고객 선호 사양을 기본 적용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옵션 패키지를 신설한 게 특징이다. 전체 트림에 실내 소파기를 기본 탑재한다. 엔트리 트림인 모던에는



기아 더 뉴 스포티지.

2열 에어벤트, 에어로 타입 와이퍼를 적용한다.

인기 트림인 프리미엄에는 2열 폴딩 레버, 스마트폰 무선충전, 2열 세이프티 파워 인도어 등 편의사양을 기본 탑재해 상품 경쟁력을 높였다.

신규 옵션 패키지 '베스트 셀렉션 III·IV'를 신설했다. III는 1.6터보 가솔린, IV는 1.6터보 하이브리드, 2.0디젤 대상이다. 이 패키지는 후측방 모니터, 서라운드 뷰 모니터, 후방 주차 충돌방지 등 고객 선호 옵션을 묶은 것으로 개별 옵션을 선택할 때보다 20만원 저렴하다.

현대차는 2025 투싼의 모던과 인스퍼

레이션 트림 판매가는 동결했고, 프리미엄 트림은 가격 인상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판매가는 ▲1.6터보 가솔린 2771만원부터 ▲2.0 디젤 3013만원부터 ▲1.6터보 하이브리드 3213만원부터다.

한편 경기 불황에 주목받았던 경차 시장은 오히려 위기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시장에서 경차는 5838대가 판매되며 전년 대비 45.7% 급감했다. 올해 1~10월 누적 경차 판매량은 8만 3883대로, 전년 동기 대비(10만2485대) 18.2% 줄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대한전선, 첨단 설비로 해저케이블 시장 공략

KG스틸과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양사 경험·노하우로 시너지 창출 충남 당진에 생산 클러스터 조성

대한전선과 KG스틸이 해저케이블 사업을 중심으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대한전선은 서초구 호반파크에서 KG스틸과 상호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대한전선은 해저케이블 2공장(이하 해저 2공장) 건설을 위해 KG스틸의 토지를 매입하고, KG스틸은 부지 대금으로 대한전선의 전환사채(이하CB)를 인수하여 재무적 투자자로서 미래가치 제고를 공동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대한전선이 해저 2공장 건설을 위해 매입하는 부지는 충남 당진시 아산국가 산업단지 고대지구에 위치한 약 21만 5000㎡(약 6만5000평)의 토지다. 현재 가동 중인 해저케이블 1공장과 맞닿아



(왼쪽부터) 김대현 호반그룹 기획총괄 사장, 송종민 대한전선 부회장, 박성희 KG스틸 사장, 광정현 KG그룹 경영전략 사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대한전선

있고 주요 생산 시설인 당진케이블공장, 솔루선공장까지 근접하여, 국내 최대 규모의 케이블 생산 클러스터를 구축하게 됐다. 대한전선은 생산시설의 집적화를 통해 지중과 해저, 전력과 통신, 소재와 완제품 등 케이블과 관련된 모든 제품을 한 지역에서 생산해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KG스틸은 부지 대금 1100억원을 C B로 지급받는다. 대한전선의 미래 가치와 해저케이블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상호 협력을 통해 기업가치를 더욱 높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정이다.

대한전선은 지난 3월 유상증자로 확보한 재원과 금번 CB발행을 통해 해저 2공장 건설을 단계별로 추진한다. 글로벌 해저케이블 수요 확대에 맞춰 620kV(킬로볼트)급 HVDC(초고압직류송전) 해저케이블과 외부망 해저케이블 생산이 가능하도록 VCV(수직연속압출 시스템) 타워 등 최첨단 설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북미 시장에서의 시너지 창출도 모색한다. 두 회사가 수십 년간 북미 시장에서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온 만큼, 미국 수출 확대 등을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KT, 하이브리드 양자 보안 실증 성공

VPN 서비스 이중보안 제공

KT가 정부 데이터망에서 이중 보안을 구현하는 하이브리드 양자 보안 기술을 실증하는 데 성공했다. KT가 '하이브리드 양자보안 VPN서비스'를 위한 실증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실증을 통해 전송망에서 고객 구간까지 하이브리드 양자 보안을 적용했다. 앞으로 KT의 VPN(가상 사설망)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들에게 더 안전한 이중 보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T 양자 보안 실증망은 전송망에 VPN 기술을 결합한 형태다. 전송망에는 QKD(양자 키 분배) 방식이 적용돼 물리적 회선의 도청 시도가 원천 차단된다.

VPN기술에는 양자컴퓨터로도 해독이 불가능한 PQC(양자 내성 암호) 기술을 적용했다. 이번 실증은 KT가 구축한 국방부-국토교통부 모사망에서 약 2주간 진행됐다. 실증에서 KT는 양자암호로 전송망을 보호하고, 해당 망에서 국방부-국토부 간 주고받는 공간정보 데이터를 양자보안 VPN으로 보호했다.

KT는 양자보안 VPN서비스를 준비하면서 고객 서비스 품질과 기능을 점검하기 위해 국방부-국토부 모사망을 KT연구개발센터와 국민대에 구현했으며, 전체 실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원(NIA)이 추진하는 양자정보통신기술 실증 사업과 연계해 진행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OCI, DB하이텍 부천공장 반도체 인산 공급

국내 반도체 소재 시장 점유율 확대

OCI가 DB하이텍 추가 수주에 성공하며 반도체 인산의 품질 및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OCI가 이달부터 국내 반도체 파운드리 전문 업체인 DB하이텍의 부천공장에 반도체 인산을 초도 납품한다고 19

일 밝혔다.

OCI는 지난 2007년 반도체 인산 사업을 시작한 이후, 군산공장에서 연간 2만 5000톤 규모의 인산을 생산하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키파운드리 등 국내 반도체 칩메이커를 대상으로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OCI가 생산하는 반도체 인산은 반도체 제

조 공정 중 웨이퍼 식각 공정에 필수적인 소재로, 웨이퍼의 불필요한 부분을 정밀하게 제거하여 회로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DB하이텍은 8인치 파운드리 전문 기업으로, 부천(FAB1)과 상우(FAB2) 두 곳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DB하이텍은 올해 상반기 생산능력 향상을 완료하여, 부천공장은 월 9만 1000장, 상우공장은 월 6만 3000장의 웨이퍼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

네이버·로레알, 친환경 파트너십

네이버는 로레알코리아와 친환경적 비즈니스 및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공동 계획 수립 등 다각적인 협력을 추진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으로 네이버 생태계 내 판매자와 이용자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가치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협업을 예정이다.

네이버는 로레알코리아와 함께 네이버쇼핑에서 리필제품 활성화를 위한 프로모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텍서리 라운지 리필워크' 캠페인을

개최해 소비자들이 뷰티 상품 구매 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다.

또한 양사는 온라인 광고 집행 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로레알코리아가 네이버 광고 집행 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측정해 환경친화적인 광고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이번 협업을 기반으로 브랜드사가 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 광고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사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사업 분야에서 공동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혜민 기자 hyem@

GREEN *Sweet* WINTER

강원 다래의 상큼 달콤함을 담은 겨울의 한 잔



다래 레드 스위트
5.9



다래 그린 스노우
ICE ONLY 6.9



강원특별자치도

우리나라 토종 과수 다래 농가와 함께합니다.

국내증시 약세에 CMA 등 파킹형 상품 ‘인기’

CMA 잔고, 1주 만에 7626억 늘어
MMF도 202.4兆… 전주비 6.1兆 ↑
KODEX 머니마켓액티브 ‘뭉치돈 풀림’
증시 불확실성, 트럼프 취임까지 지속

국내 증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머니마켓펀드(MMF) 등 초단기로 자금을 굴릴 수 있는 금융 상품에 투자가 몰리고 있다. 특히 코스피 지수가 240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등 국내 증시 약세가 이어지고 있어 이러한 흐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CMA 잔고는 86조3950억원으로 1주 만에 7626억원이 늘었다. CMA는 증권사가 고객의 자금을 받아 기업어음(CP), 국공채, 양도성예금증서(CD) 등 상품에 투자해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계좌다.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고 하루만 돈을 맡겨도 이자를 받을 수 있어 대기 자금을 묻어두는 용도로 많이 쓰인다.



코스피가 전 거래일(2469.07)보다 2.88포인트(0.12%) 오른 2471.95,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689.55)보다 3.43포인트(0.50%) 내린 686.12에 거래를 종로했다. /뉴시스

다른 파킹형 자금인 MMF도 202조 4868억원으로 전주 대비 6조1389억원 증가했다. 증시 대기자금인 투자예탁금 역시 지난 6일 49조8900억원에서 18일 50조9183억원으로 늘었다.

파킹형 ETF에도 자금이 몰리고 있다. 파킹형 ETF는 CD 금리나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 미국무위험지표금리(SOFR) 등 기초지수의 단기금리를 복리로 계산해 이자가 나오는 상품이다. 금리는 아니지만 만기 3개월

이내의 초단기 채권에 분산 투자하는 MMF에 투자하는 상품도 파킹형 ETF로 분류된다. 하루만 돈을 넣어도 이자를 받을 수 있고 단기 자금의 입출금이 자유롭다는 점은 파킹 통장과 같지만, 한도액이 없고 웬만한 파킹통장의 이율보다 수익률이 높아 투자자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코스콤ETF 체크에 따르면 최근 1주일간 순자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ETF는 ‘KODEX 머니마켓액티브’로 5321억원 늘었다. 기존 MMF

처럼 안정적으로 운용하면서 추가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뭉치돈이 몰렸다. 같은 기간 ‘TIGER CD금리투자KIS(합성)’, KODEX CD금리액티브(합성)에도 916억원, 902억원의 순자산이 증가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증시가 약세를 지속하면서 투자금이 대기성 자금으로 유입되고 있다”며 “증시가 상승세로 전환하게 되면 증시에 다시 유입될 수 있는 자금이라는 하지만 현재는 이자 수익 확보나 일시적인 자금 운용 목적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증권가에서는 당분간 조정장이 이어지면서 분위기의 반전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트럼프의 정책 불확실성이 실제로 줄어들 수 있는 시기는 내년 1월20일 취임식 이후로 예상된다”며 “취임식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리스크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내다봤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한국투자증권

MAN다이나믹인컴 펀드
월배당 등 2종 단독판매

한국투자증권은 글로벌 하이일드펀드 ‘한국투자MAN다이나믹인컴월배당 펀드’와 ‘한국투자MAN다이나믹인컴 펀드’를 단독 판매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펀드들은 글로벌 자산운용사 만(MAN) 그룹의 ‘MAN GLG dyamic Income’ 펀드에 재간접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다. 2022년 출시된 MAN GLG dyamic Income 펀드는 글로벌 투자등급 및 하이일드 채권펀드에 투자하는 펀드로, 철저한 가치평가에 기반하여 글로벌 채권을 선택하여 채권 자본이익과 이자수익을 동시에 추구한다. 한국투자증권 측은 “특정 지역에 구애 받지 않지만, 최근에는 미국에 비해 금리수준이 높은 유럽 채권 비중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기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하는 동시에 다양한 투자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어 정기적 소득, 안정적 수익, 장기적인 성장을 기대하는 투자자 모두에게 적합하다”고 소개했다.

해당 펀드의 성과 핵심지표인 YTW(Yield to Worst, 채권 투자자가 기대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익률)는 8.1% 수준이다. 출시 이후 71.3%(10월 31일 기준)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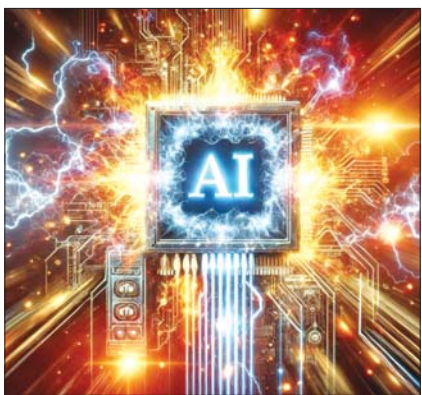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운용하는 한국투자MAN다이나믹인컴월배당 펀드는 수익을 기반으로 고객에게 월배당금을 지급한다. /허정윤 기자

AI 열풍·기업규제 완화… 전력·원자력 ETF 기대감 ‘쑥’

美 빅테크 AI 기반 성장핵심은 ‘전력’
신한·삼성운용 관련 ETF 상승세
트럼프 당선인 공약에 시장성장 전망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열풍이 사그라들지 않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에너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역시 AI 기업 규제를 풀어주며 빅테크 성장을 촉진할 방침이기에 향후 관련 시장의 성장이 기대되는 분위기다.

19일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신한자산운용의 ‘SOL 미국AI전력인프라’는 상품이 출시된 올해 7월 16일 이후 35.46% 상승한 1만3275원에 이날 장을 마감했다. 삼성자산운용이 지난 7월 9일 출시한 ‘KODEX 미국AI전력핵심인프라’도 출시 이후 23.85% 상승했다. 이들 두 상품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AI 기반 성장의 핵심에는 ‘전력’



ChatGPT에 의해 생성된 ‘전력을 주입받고 있는 AI 칩’ 이미지.

이 있다고 보고 있다.

삼성자산운용은 KODEX 미국AI전력핵심인프라 ETF의 구성 종목을 AI 슈퍼사이클의 핵심 종목으로 담았다. 이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은 ‘GE 버노바’와 ‘비스트라 코퍼레이션’으로, 이들 기업은 미국에서 에너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ETF가 상승세를 보이는 이

유는 AI가 고도화하면서 데이터센터가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안정적으로 전력을 확보하는 것이 빅테크 기업들의 과제가 된 셈이다. 골드만삭스는 빅테크들이 AI 개발 경쟁을 벌이면서 세계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가 올해 393테라와트시(TWh)에서 2030년 1063TWh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도 AI관련 기업들에게 날개를 달아줄 가능성이 높아 전력주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바이든 행정부는 ‘AI 행정명령’을 통해 규제 중심의 기술 개발을 강조하며, 기업이 개발한 AI 모델이 위험을 초래할 경우 연방정부에 해당 정보를 통지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이에 반해 트럼프는 AI 행정명령 폐지 등 빅테크 기업들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AI 투자 촉진·법인세 최고세율 15% 인하 공약을 내놓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전력인프라ETF와 함께 각광 받는 ETF는 원자력 관련 ETF다.

KB자산운용이 운용하는 ‘RISE 글로벌원자력’ ETF도 올해 초 1만3030원이었는데, 이날 종가는 2만550원이 되며 57.71% 상승했다.

금투업계에서는 인프라구축을 위한 대규모 전력이 필수인 만큼 원자력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면서 관련 ETF들도 지속적인 상승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다. 정연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존에는 태양광과 풍력 위주로 PPA 시장이 형성됐지만 최근에는 24시간 내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원자력 PPA가 체결되기 시작했다”며 “빅테크 기업들 모두 원자력을 새로운 데이터센터향 전력 공급원으로 주목하고 있으며 전력 인프라 밸류체인 의 장기 호황은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서학개미, ‘트럼프 수혜주’ 테슬라 추격매수

해외주식 Click

지난주 테슬라 2.9억달러 순매수
곱버스 종목에도 배팅하며 투심 갈려

‘트럼프 수혜주’인 테슬라와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가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급등한 가운데, 서학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이 한 발 늦은 추격매수에 나섰다. 특히 테슬라 관련 종목에 공격적인 매수 태도를 보였다.

19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주(11월 12일~18일) 서학개미들이 가

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테슬라로 이 기간에만 2억9275만달러(4074억원)를 순매수했다. 테슬라의 하루 주가 수익률을 2배 추종하는 디렉시온 데일리 테슬라 볼 2배 ETF도 1억1286만달러(1570억원) 사들이면서 테슬라에 대한 높은 선호를 보였다.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오기 직전이었던 지난 10월31일부터 11월6일 사이에 1억7166만달러(2388억원) 순매도한 것과는 상반되는 모습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후원했던 만큼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기대감이 상

승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선 이후 현재까지 테슬라의 주가는 34.72% 급등했다. 테슬라의 주가는 최고점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서학개미들은 주저하지 않고 추격 매수에 나서는 모습이다.

다만 김세환 KB증권 연구원은 “테슬라의 고공행진은 주가 부담을 높이고 있는데, 이는 이번 대선에서 일론 머스크가 보여준 행보에도 밀접한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테슬라가 가성비 모델 출시, 로보택시 등 직접적인 수익에 영향을 줄 만한 요인들을 준비하고 있지만 시가총액 1조달러를 설명하기에는 수익성이 저조하다”고 판단했다.

일례로 2020년 미국 대선 당시 ‘바이든 테마주’로 분류됐던 친환경 상장지수펀드(ETF) ‘TAN’의 경우에도 대선

직후 120달러를 넘긴 후 현재 36.04달러 수준으로 내려왔다는 부연이다. 테슬라 역시 높은 주가를 정당화할 수익성과 현금흐름이 미흡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주가수익비율(P/E) 거래배수(멀티플)를 보이고 있어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테슬라에 대한 전망이 불확실한 만큼 투자자들의 투심도 갈리고 있다. 서학개미들은 테슬라 상승 흐름에 배팅하는 동시에 곱버스(역방향 2배) 종목에도 투자했다.

지난주 서학개미들은 테슬라의 하루 주가 수익률을 반대로 2배 추종하는 ‘티렉스 2배 인버스 테슬라 데일리 타겟’ ETF를 2570만달러(357억원) 사들였다. /신하은 기자 godhe@

미래에셋투자자연금센터

퇴직 앞둔 50대 직장인
“근로종료 때 연금개시”

미래에셋투자자연금센터가 퇴직을 앞둔 50대 직장인들의 재정 상태와 성향에 따른 퇴직연금 수령 의향과 인식을 조사하고, 연금 수령 활성화를 위한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응답자의 85%가량이 연금개시시기를 ‘근로를 종료하는 시점에 연금을 개시하겠다’고 답했다.

미래에셋투자자연금센터는 투자자연금리포트 68호 ‘퇴직연금, 언제 어떻게 받을까?’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퇴직급여를 수령해야 할 시기에 퇴직자가 의사결정이 필요한 지점은 연금수령 의향, 연금개시시기, 연금수령 방법, 연금계좌 이전 등으로 특정된다. 미래에셋증권이 조사한 연금수령자의 의사결정 지점별 응답자의 인식과 태도는 다음과 같다.

퇴직연금 수령 의향은 가입자의 재정여건, 퇴직연금 가입유무, 퇴직연금 세제 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하겠다는 응답자는 50.2%로, 이들의 평균 자산은 12억2000만원으로 일시금을 선택한 응답자(9.5억원)보다 약 3억원 많았다. 반면, 일시금 인출하겠다는 응답자의 부채의존도는 41%로 연금수령 의향을 밝힌 그룹(15~16%)에 비해 높았다.

연금개시시기의 결정은 응답자의 85.3%는 근로를 종료하는 시점에 연금을 개시하겠다고 답했다. /허정윤 기자

광고요금제 이몽... 실적개선 ‘효자’ vs 선택권 제한 ‘뭇매’

OTT업계 상반행보

넷플릭스·디즈니플러스·티빙
광고형 요금제로 가입자·수익 ↑

유튜브 국내서 ‘단일요금제’ 제공
공정위서 ‘상황 개선’ 의견 보내고
‘끼워팔기’ 의혹 관련 조사 진행중

광고요금제를 두고 미디어 업계가 상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는 광고 포함 요금제를 출시해 이용자를 대거 끌어들이고 있는 반면 유튜브는 국내서만 광고 제거 요금제를 단일로 제공하며 강매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한국 이용자는 유튜브 뮤직을 이용하지 않으면 유튜브 광고를 제거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최근 유튜브에 광고 제거 전용 요금제를 출시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19일 글로벌 OTT 기업인 넷플릭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광고포함요금제’가 출시된 지 2년 만에 월간 활성 이용자 수 7000만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넷플릭스가 지난 5월 광고 포함 요금제의 월간 이용자 수가 4000만명이라고 밝혔던 것보다 증가한 것이다.

이날 넷플릭스는 광고형 멤버십 런



챗Gpt가 생성한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티빙의 수익 개선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미지.

칭 2주년을 맞아 “해당 요금제가 운영 중인 국가들에서는 신규 가입자의 50% 이상이 광고형 멤버십을 선택했다”며 이같이 공개했다.

앞서 넷플릭스는 실적 발표를 통해 올해 3분기 가입자 수가 507만 명 늘어난 총 2억8272만명을 기록했다고도 밝힌 바 있다. 이는 월가가 예상한 추가 가입자 수 450만명을 크게 상회한 규모다.

그간 넷플릭스는 광고 사업 촉진을 위해 라이브 스트리밍을 늘리는 등 콘텐츠를 다양화해 왔다. 넷플릭스는 2022년 11월부터 다른 요금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광고포함요금제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미국 기준 광고 포함 요금제는 한 달에 6.99달러이고, 광고 제외 요금제는 한 달에 15.49달러부

터 시작된다.

디즈니플러스도 광고 요금제를 통해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월트디즈니컴퍼니가 지난 15일 발표한 올 3분기 실적발표에 따르면 디즈니+ 등 OTT를 포함한 스트리밍 사업 영업이익이 약 4506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영업손실 약 5436억원) 대폭 흑자전환했다. 앞서 디즈니의 스트리밍 사업은 적자를 지속해왔지만 지난 2분기 영업이익 4700만달러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흑자전환한 바 있다.

특히 이번 흑자전환은 광고 요금제 도입이 주효했다. 디즈니에 따르면 디즈니플러스의 신규 가입자의 약 60%가 광고 요금제 선택했으며 미국 디즈니플러스 가입자의 37%가 광고 요금제에

가입했다.

밥이거 디즈니 CEO는 “최근에 적용한 가격 인상은 더 많은 사람들을 AVOD(광고 기반 주문형 비디오) 방향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고안됐다”고 설명했다.

국내 OTT 기업인 티빙의 상황도 비슷하다. 티빙은 광고형 모델을 도입한 이후 이용자 수가 대폭 늘었다.

모바일 인택스에 따르면 티빙의 2023년 11월 말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는 약 430만 명이었으나, 광고형 모델을 도입한 이후인 올 2분기에는 74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규 가입자의 30~40%가 광고형 요금제를 선택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티빙의 광고형 모델 이용자 수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후티 티빙 대표는 “광고형 요금제를 통해 올해 티빙 유료 가입자가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고 광고 매출은 100억원을 넘어섰다”며 “티빙의 연간 매출 중 광고형 요금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1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반면 유튜브는 광고가 없는 프리미엄 요금제를 국내서만 단일로 제공하며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재 한국 이용자는 유튜브 뮤직을 이용하지 않으면 유튜브 광고를 제거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국내 소비자만

강매를 당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광고 제거, 백그라운드 재생, 동영상 다운로드 등 기능을 제공하는 유료상품이다.

이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 코리아에 유튜브 뮤직을 구매하고 싶지 않은 소비자도 유튜브 광고를 제거하기 위해 유튜브 뮤직까지 구매해야 하는 상황을 개선하라는 취지의 조치 의견을 보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튜브가 동영상서비스 지배력을 남용해 유튜브 뮤직을 끼워팔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구글은 해외에서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요금제·학생요금제 등 40~60% 저렴한 상품을 운영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단일 요금제만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내 판매되는 유튜브 상품은 유튜브 프리미엄(월 1만4900원), 유튜브 뮤직 단독 상품(월 1만1900원) 등 2가지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유튜브 뮤직과 유튜브 동영상을 결합한 상품으로,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은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고 있다. 핀란드, 스웨덴 등에서는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을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의 약 60% 수준에 판매 중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폼클렌저, 자외선차단제 제거 성능 제각각”

소비자원, 10개 제품 시험·평가
5개 제품 스크림 제거성능 ‘양호’
마녀공장, 소비자 만족도 1위

얼굴 화장이나 유분 등을 씻어내는 화장품인 폼클렌저의 자외선차단제 제거 성능이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19일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폼클렌저 10개 제품에 대해 세정력과 소비자 사용감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험 결과, 메이크업 세정 등에 사용되는 클렌징 오일(유분)을 제거하는 성능은 전 제품이 우수했으나, 피부에 바

른 자외선차단제를 제거하는 성능은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특히, 클렌징 오일은 대부분 제거됐지만 자외선차단제는 세안 후에도 피부에 일부 남아있을 수 있어 꼼꼼한 세안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외선차단제 제거 성능은 10개 제품 중 마녀공장, 파인투데이코리아, 카버코리아, 이니스프리, 아모레퍼시픽 5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소비자가 폼클렌저를 직접 사용하고 평가한 행균성, 만족도 등도 제품별로 달랐다.

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전반적 만족도는 최저 3.1점 ~ 최고 3.8점으로 나타났다고, 마녀공장 제품이 행균성(4.2점),

전반적 만족도(3.8점) 항목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중금속 등 안전성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고,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와 내용량 등도 모든 제품이 관련 표시 기준을 준수했다.

가격은 최대 2배 차이가 났다.

10mL당 가격은 네이처리퍼블릭 제품이 667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마녀공장 제품이 1333원으로 가장 비쌌다.

가격이 저렴하고 세정력이 양호한 수준 이상인 가성비 제품으로는 아모레퍼시픽, 파인투데이코리아, 이니스프리 제품이 꼽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코웨이 직원이 토탈케어서비스를 통해 정수기를 점검하고 있다.

/코웨이

코웨이, 6개 고객만족도 조사 ‘1위 석권’

정수기 부문 ‘아이콘 시리즈’ 인정
제품력·렌탈케어 서비스 등 주효

코웨이가 국내 주요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1위를 석권하며 서비스 품질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올해 고객만족도 조사 정수기 부문에서 6관왕을 달성하며 정수기 원조 기업의 저력을 입증했다.

19일 코웨이에 따르면 올해 ▲한국산업의 구매인심지수(KPEI)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국가브랜드 경쟁력지수(NBCI) ▲국가고객만족도(NCSI)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KCSI)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등 6개의 올해 국내 주요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코웨이는 정수기 대표 제품인 아이콘 시리즈의 우수한 제품력과 렌탈케어 서비스 전문성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소비자 니즈를 충족하고 차별화한 고객 경험을 제공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코웨이 아이콘 시리즈는 누적 판매량

100만 대를 넘어선 베스트셀러 제품으로 기술력과 높은 위생성, 혁신적 디자인으로 정수기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출시한 ‘2024년형 코웨이 아이콘 얼음정수기’는 얼음정수기 최초로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온수 온도와 출수 용량, 얼음 크기까지 제어 가능한 사용자 맞춤 기능을 탑재해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또한 정수기 위생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정수기 위생 전문가가 제공하는 ‘토탈케어서비스’ 운영과 ‘정수기 살균 키트’를 도입해 서비스 품질을 강화하는 등 체계적인 위생 서비스 확대로 최적의 케어 서비스를 제공한 점이 소비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토탈케어서비스’는 정수기 제품 내부에 물이 흐르는 부품 ▲얼음트레이 ▲이너탱크 ▲입수파이프 ▲유로관 ▲추출부 등을 전체 교체하고 탱크 살균까지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정수기 위생 전문가가 제공하는 코웨이만의 차별 서비스이다.

/김승호 기자 bada@

중기중앙회-옴부즈만, 규제개선 의기투합

기업한도대출 수수료·전기세 납부 등
외국인 유학생 고용허가제 등 건의도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중소기업 규제개선을 위해 의기투합하기로 했다.

중기중앙회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최승재 중기옴부즈만과 간담회를 갖고 개인보다 기업에게 불리한 중·소상공인 기업한도대출수수료, 가스·전기요금 카드납부 등의 규제들을 개선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통상의 개인 한도대출과 달리 기업은

실제 대출실행과 관계없이 한도약정수수료 또는 한도미사용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같은 수수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또 가스·전기요금을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자리에서 ▲외국인 유학생 고용허가제 취업 근거 마련 ▲산업체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계약학과 설치 운영규정 완화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와 공동사업 지원조건 완화 등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기중앙회

이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21대 국회 의원을 역임한 소상공인 전문가께서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맡게 돼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된다”면서 “지난 9월 정부에 제출한 ‘2024 중소기업이 선정한 현장규제 100선’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중기중앙회가 건의한 현장규제 100선에 대해선 정부 부처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중앙회와 옴부즈만, 양 기관이 전문성과 역량을 살려 협업을 더욱 강화한다면 각종 불합리한 규제, 제도, 관행으로 힘겨운 중소기업에게 가문의 단비와 같은 좋은 소식을 자주 전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스마트팜부터 푸드테크 혁신까지 글로벌 식품 트렌드 한자리서 경험

농식품부, 푸드위크 2024 개최
지난해 대비 10배가량 커진 규모
대체·신식품 등 미래 식품산업 선행
바이어·소비자 비즈니스 플랫폼 제공

농림축산식품부와 코엑스가 이달 20~23일 나흘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푸드위크 2024’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행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식품 전시회로, 올해는 31개국·1054개 기업(1846개 부스)이 참가한다.

특히, 지난해 푸드위크(109개 기업·164개 부스)와 비교해 무려 10배가량 큰 규모로 치러질 예정이다. 올해 ‘대한민국식품대전’과 ‘코엑스 푸드위크’가 통합돼 민간합동 최대 식품 전문박람회로 확대된 것이다. 농식품부 등 주최 측은 이번 행사 방문객 수가 5만500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는 국내외 프리미엄 식품부터 대체·신식품, 제조자동화, 스마트유통, 팜테크까지 미래의 식품산업을 선보인다. 또 바이어는 물론, 소비자와의 만남까지 참가업체의 목적에 맞는 최적의 비즈니스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부대행사로, 월드푸드테크 엑스포, 베이커리페어 등도 개최된다.

전시품목으로 국내외 식품 전반, 식품원료, 가공식품, 냉장·냉동식품, 원부재료·조미료·첨가물, 간편식, 디지털·간식, 건강기능식품, 음료·차·주류, 대체식품 및 원료 등을 아우른다. 또 제조·가공·포장 기계설비를 비롯해 식품자동화 솔루션, 물류·콜드체인, 위생안전설비, 스마트팜 솔루션, 친환경



지난해 11월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코엑스 푸드위크 2023’을 찾은 방문객들이 행사장 입장을 위해 줄지어 서 있다. /뉴시스

경·ESG 솔루션, R&D·데이터 솔루션, 차세대 식품기술 등의 전시도 예정돼 있다.

특히, 식품, 디저트, 급식·외식, 푸드테크 등 전시관 4곳에서는 ‘삶에 변화를 주는 푸드테크’를 주제로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 식품산업이 나아갈 ▲혁신의 미래 ▲상생의 미래 ▲공정의 미래 등이다.

정책홍보관의 경우, 대한민국 식품산업의 태동과 발전, K-푸드로의 성장 과정을 돌아보고 푸드테크와 함께하는 식품산업의 미래를 조망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푸드테크관은 유망 중소기업이 참가해, 인력부족·기후변화·지역소멸 대응을 비롯해 웰니스, 청년창업과 블루푸드를 주제로 다양한 제품을 전시한다.

농식품부는 20일 개막식에서 식품외식산업 발전 유공자 12명에 대해 정부포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올해는 식

품 관련 행사를 한자리에 모아 대한민국 식품산업의 발전사와 다양한 푸드테크 기술 및 제품을 소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정부는 식품산업의 활성화 및 미래 성장 산업화를 위해 소비자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유용한 정보와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기간 코엑스에서는 또 동시개최 행사 중 하나로 ‘2025 식품외식전망’이 소개된다. 식품 및 외식산업의 발전을 위해 업계, 학계, 관련기관 관계자 등이 참가해 국내외 식품·외식업에 대해 소비트렌드와 경영전략 등을 공유하는 자리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주관하는 이 부대행사는 20~21일 이틀간 오프라인과 온라인(유튜브)으로 동시에 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2024 월드 푸드테크 콘퍼런스, 2024 글로벌 푸드테크 기술 표준화 심포지엄 등의 부대행사도 계획돼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K-녹색산업, 실리콘밸리서 투자 유치 추진

환경부, ‘녹색기술 투자설명회’ 개최
우수 녹색기술 보유 기업 10곳 소개

정부가 국내 우수 녹색산업체의 미국 환경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미국 실리콘밸리로 녹색산업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시장개척단 파견은 국내 녹색산업체의 미국 환경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IR 피칭데이(K-Green Day) 개최, 현지 투자유치, 파트너사 발굴 지원 등을 목표로 추진됐다.

이번 투자설명회는 세계적인 신생기업 육성기관인 플러그앤플레이(Plug N Play)가 주최하는 실리콘밸리 동계서밋과 연계해, 오는 2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플러그앤플레이 테크센터’에서 열린다. 환경부는 세계 각국의 정부 및 기관, 글로벌 투자자, 기업 파트너, 기술 기반 스타트업 등 40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플러그앤플레이는 지난 2006년 설립된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센터로, 현재까지 2000개 이상의 신생기업(스타트업)



세종정부청사 환경부.

업)에 투자해왔다. 서울을 포함해 전 세계 64개 지사를 운영 중이며, 연간 50개 이상의 산업별 엑셀러레이터(Accelerator) 프로그램을 개최해 스타트업 창업 및 초기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투자설명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모집해 10개 기업을 선정하고, 9월 25일부터 7주간 투자유치를 위한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사전교육은 미국 등 세계 주요 녹색산업 투자 시장 정보 및 전망, 발표 자료 작성

방법과 소개 기법, 기업별 투자유치 조건(멘토링)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선보일 국내 녹색기술은 ▲디젤매연저감장치(DPF) 방식 공기정화시스템 ▲그린수소 발생장치 ▲나노구조 우수분리막(멤브레인) ▲에너지 독립형 태양광 카메라 ▲폐플라스틱 재활용 재생 플라스틱 ▲수처리용 비소흡착제 ▲페폴리우레탄 저온해동합재생 고품질 폴리를 생산 ▲농식품 부산물로 재활용한 친환경 소재 ▲공기중 탄소 직접 포집 및 재생에너지 생산 ▲환경 정화용 미생물 제제 등 10개 기술이다.

환경부는 실리콘밸리 동계서밋 기간 동안 행사장에 소규모로 기업별 홍보공간을 운영해 관련 기술의 홍보 영상 및 자료(리플렛) 등을 현지 투자자에 적극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 강소기업의 녹색기술이 미국 등 북미 선진국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더 나아가 투자까지 결실이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세종=김대환 기자 kdh@

한전, 스마트미터링으로 글로벌 진출 가속

21일까지 ‘스마트미터링 워크’ 개최

한국전력공사는 19일~21일까지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내 로얄파크컨벤션에서 AMI 보급사업 완료를 기념하고 스마트미터링 신사업 미래 비전을 내외에 공표하고자 ‘스마트미터링 Week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는 전자식 전력량계와 양방향 통신망을 통해 고객에게 실시간 전력 사용 정보와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 전력 계량 인프라다. 한전은 2010년 50만호에 대한 AMI 보급을 시작으로 올해 2005만 호에 대해 보급사업을 완료했다.

AMI 보급을 통해 고객들은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으며, 한전은 보다 안정적이고 중립적인 배전망 운영이 가능해진다. 또 전력 데이터와 통신, 금융 등 타 데이터를 융합한 종합 플랫폼 서비스가 활성화돼 혁신적인 신사업모

델 창출도 기대된다.

3일간 이어지는 이번 행사에서는 기술위원회 발족식, 기술포럼 등을 통해 주요 정책이 협의·의결된다. , 또 국제협력MOU, 국제 컨퍼런스, 스마트미터링 신사업 선포식, 상생협약식 등이 진행된다. 스마트미터링 신사업 선포식에서는 ‘스마트미터링으로 Green, 새로운 에너지 세상’이란 슬로건으로 ▲전력판매에서 데이터 서비스 중심으로 사업영역 전환 등을 통한 민간 동반성장 추진을 다짐할 예정이다.

특히 한전은 필리핀 최대 전력사인 Meralco(Manila Electric Company)와 ‘스마트미터링 기술교류 및 해외수출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독일 전기·전자제품 안전성 시험·인증기관인 VDE(독일전기전자기술자협회)와는 ‘스마트미터링 공동연구 협력 MOU’를 체결, 수출형 사업모델 개발과 해외시장 진출 파트너십을 구축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원산지 둔갑 소고기 15분 만에 가려낸다

농관원, 신속 단속키트 개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소고기의 원산지를 15분 만에 확인할 수 있는 ‘소고기 원산지판별 키트’를 개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료 채취 후 실험실 분석을 거치는 과정 없이, 단속 현장에서 바로 판독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됐다.

기존 소고기 원산지 판별에는 시료 1건당 실험실에서 분석기간 3일, 분석비용 3만 원, 시료량 20g이 소요된 바 있다. 이번에 개발한 현장용 키트는 종전 대비 1/3 가격으로 현장에서 15분 안에 한우와 비한우를 판별할 수 있게 됐다.

시험연구소는 한우만이 갖는 고유한 유전자를 찾아내 유전자 증폭기술을 특허출원한 바 있다. 원산지판별 키트의 저렴한 생산과 범용적인 활용을 위해, 휴대용 유전자 증폭기 전문 생산업체에 기술이전을 하고 시제품을 성공적으로 생산하게 됐다는 게 농관원 측

설명이다.

이 키트는 향후 시범운용을 마치는 대로 현장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농관원은 아울러 지자체·생산자·소비자단체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성우 농관원 원장은 “소고기 원산지판별 키트의 개발을 통해 외국산 소고기의 국내산 둔갑 방지 등의 관리가 더욱 효율화될 것”이라며 “축산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쇠고기 유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현장 단속용 원산지판별 키트는 농관원 시험연구소의 자체 연구로 개발한 돼지고기 원산지판별 키트에 이어 두 번째로 이뤄낸 연구성과이다. 지난 2021년 이후 사용 중인 돼지고기 원산지판별 키트는 시료 0.3g을 이용해 현장에서 5분 내에 판독해 낼 수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공공폐수처리 우수사례로 전국 수질 개선

환경부, 청주·진주·고흥군 최우수

환경부는 지난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 실태를 평가한 결과, 청주시, 진주시, 고흥군을 그룹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시설 운영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됐다. 이번 평가는 전국 10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폐수 유입량, 처리 효율, 방류수 수질 관리, 안전 관리 등 14개 항목에 대해 유역(지방)환경청이 1차 평가를 실시했다. 이후 환경부 심의위원회의 2차 평가를 통해 최종 결과를 확정했다.

최우수 기관 선정 외에도 대전시, 안성시, 창원시, 안동시, 보은군, 창녕군

등 6개 지자체를 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 또한, 전년 대비 평가 점수 상승 폭이 가장 큰 시설 운영 기관인 예코비트워터, 광양시, 군위농공단지협의회 등 3곳에는 발전상을 수여한다.

환경부는 오는 28일 제주 신화월드에서 열리는 ‘2024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 연찬회’에서 최우수 등 수상기관 12곳에 대해 환경부 장관 표창 등을 수여할 계획이다. 수상기관의 발표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전국 지자체 및 운영기관 등에 공유할 예정이다.

박재현 환경부 물환경정책실장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 평가가 지자체 간 경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공공수역의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세종=김대환 기자

2024 글로벌디지털초월대상 시상 및 컨퍼런스

The Edge of ACx : AI, CLOUD 비즈니스 성공 전략

2024. 11. 25.(월) 13시 40분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실(B1)



[제1부] 초월대상 시상식

일정	시간	내용	비고
13:40~14:00	20'	VIP 티타임	VIP룸(소회의실1)
14:00~14:02	2'	초월대상 시상 개회	사회자
14:02~14:27	25'	[기조강연1] 인공지능 전환(AI) 시대의 정부혁신과 전략	황종성 원장 (NIA)
14:27~14:50	25'	[기조강연2] 생성형 AI시대, 강한 기업으로 성장하는 길	김득중 부원장 (NIPA)
14:50~14:53	3'	개회사	조풍연 회장 (한국SW·ICT총연합회)
14:53~14:56	3'	환영사	강도현 차관 (과기정통부)
14:56~14:59	3'	축사	강병준 사장 (전자신문사)
14:59~15:02	3'	축사	이장규 대표이사 (메트로경제)
15:02~15:30	30'	2024 초월대상 수상자 시상 및 사진 촬영	
15:30~15:40	10'	Break Time (컨퍼런스 준비)	사회자

[제2부] 컨퍼런스 개최 (The Edge of ACx : AI, CLOUD 비즈니스 성공 전략)

일정	시간	트랙1		트랙2	
15:40~16:00	20'	AI가 이끄는 클라우드의 방향	김원일 이사 (투이컨설팅)	AI 일상화 시대 : 디지털 전환을 넘어 AI전환으로	지용구 대표 (더존비즈온)
16:00~16:20	20'	연계미들웨어 기반의 생성형 AI 및 RAG 연계 전략	이승형 실장 (메타빌드)	데이터 일관성 확보 및 품질향상을 위한 통합솔루션	이동석 총괄대표 (한국정보기술단)
16:20~16:40	20'	주목하라! AI시대 증가량 비즈니스	구본홍 이사 (PCN)	생성형 AI기반 공공 AI 혁신 전략과 사례	표정수 이사 (클라이온)
16:40~17:00	20'	AI·클라우드가 리드하는 업무효율 극대화: 차세대 협업	전일권 상무 (가온아이)	사례로 보는 AI 테스트	김기범 이사 (와이즈와이어즈)
17:00~17:10	10'	경품 추천 (※ 아이패드, 스타벅스 상품권 등)			

주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한국SW·ICT총연합회



전자신문



metro

후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정부정보화협의회, 공공부문발주자협의회, 한국SW저작권협회, 정보시스템감리협회, 한국PMO협회, 한국상용SW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데이터산업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한국제로트러스트보안협회, 한국ICT융합협회, 한국중소벤처디지털혁신협회

문의 : 이석균 부회장 010-9132-0390

목포대-순천대 통합 합의... 이르면 2026년 의대정원 배정

2026년 3월 통합대학 출범 목표
내년부터 신입생 모집 나설 듯
양 대학 '공동추진위원회' 구성

전남 첫 의과대학 신설의 마중물이자 최대 난제였던 국립 목포대와 국립 순천대 통합이 전격 합의에 이르면서 대학간 통합과 이를 전제로 한 통합의대 신설이라는 두 트랙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목포대와 순천대는 학령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지역과 대학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대학간 통합 필요성에 공감하고 주말과 휴일도 반납한 채 10여 차례 실무협의를 가진 끝에 지난 15일 6개항의 통합 합의서에 공동 서명했다.

이에 따라 두 대학은 대학간 통합을 위한 중장기 레이스에 본격 시동을 거는 동시에 이르면 2026학년도 통합의대 첫 정원 배정을 위한 단기 레이스에 돌입했다.

우선, 발등의 불인 통합의대의 경우 22일 통합의대 명의로 교육부에 전



목포대-순천대 대학본부.

남 국립 통합의대 신설 추천서를 제출하게 된다. 이어 29일까지 한국의학 교육평가원(의평원)에 신설 의대 예비인증을 신청하게 된다.

교육부와 의평원 신청서에는 통합대학 교명, 인력양성 계획, 대학본부와 운영 거버넌스 등이 담기게 되고, 교지(校地)를 비롯해 교원 확보, 교육과정, 병원, 기숙사 등 5대 핵심쟁점에 대한 구상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교육부는 신설 의대 정원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논의를 거치게 되고, 전남 통합대학은 내년 4월 2026학년도 대입 모집요강 수요조사 때 통합의대 신입생 선발 인원과 전형계획 등을 교육부에 제출하고, 대입 전형은 5월에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모든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전남 국립 통합의대는 2025년부터 신입생 모집에 나서 2026년 3월 개교하게 된다. 정원은 정부 방침과 양 대학간 협의가 필요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양 대학은 통합대학 신청 시 교육부가 정한 기한 안에 요건을 갖추지 못한 대학이 있을 경우 요건을 갖춘 대학이 통합의대 정원을 우선 배정받되, 교육부 요건을 보완하면 즉시 통합대학으로 정원을 배분하기로 했다.

목포대와 순천대는 2026년 3월 통합대학 출범을 목표로 본격적인 후속 조치에 나섰다. 우선 올해 12월 말까지 대학통합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6학년도 통합대 출범과 신입생 모집을 위해서는 내년 4월까지 행정·학사·정원구조 개편안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양 대학은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 양 대학 동수로 '공동추진위원회'를 공동 구성하기로 했다.

양 대학 측은 "통합 신청서가 접수되면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최근 글로벌대학으로 인해 대학간 통합 절차가 예전보다 빨라졌지만 변수가 많아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부산시

로봇 엔드이펙터 사업 공모 선정

부산시가 제조산업 공정작업용 로봇 엔드이펙터 실증기반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국비 100억원을 확보했다.

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이달부터 2028년까지 총사업비 174억원을 투입한다. 국립부경대학교 및 동서대학교 내에 '로봇 엔드이펙터 실증 지원 센터'를 구축하고 장비 도입 및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엔드이펙터 지원센터 구축은 엔드이펙터 자체의 성능과 함께 연관된 센서, 액세서리 등 모든 장치가 연동된 시스템에 대한 성능 및 신뢰성 검증 및 실증 등을 지원함으로써 엔드이펙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이도식 기자

전남교육청

글로벌학교로 맞춤형 인재 양성

전남교육청이 지역 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전남글로벌학교를 추진하고 있다. 산업현장의 직무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가칭 으뜸고등학교와 직업계고 간 팀을 이뤄 고숙련 기술인재를 양성하는 상생고등학교 형태로 추진한다. 으뜸고등학교는 과정평가형 자격제도·지역 산업 연계 프로젝트 수업·글로벌 진로 직무 실습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 학생들이 지역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남=양수영 기자

김천시

지방소멸 대응기금 40억 확보

경북 김천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 대응기금 40억원을 확보했다. 이 기금은 행안부가 인구 감소지역 89곳, 관심 지역 18곳 지자체를 대상으로 차등 지원한다.

김천시는 관심 지역으로 투자계획 평가 결과 전국 18곳 지자체 중 상위 10%에 선정됐다. 확보한 기금은 농업 근로자 커뮤니티 공간 조성, 예비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에 쓰인다.

김종섭 김천시장은 "농촌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하고 귀농인의 정착을 유도해 활기 넘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천(경북)=김상복 기자 ksb8100@

부산시, 지역 콘텐츠기업 육성 박차

내일 '부산콘텐츠비즈타운' 개소 기업 발굴해 단계별 지원 체계 완성

부산시는 오는 21일 지역 콘텐츠기업 육성 기반 시설인 '부산콘텐츠비즈타운'이 문을 연다.

지난해 3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비즈타운은 부산진구에 위치한 옛 동서대학교 사회교육원 건물을 리모델링해 38개의 기업 입주실, 회의실, 복합공간 등이 조성됐다.

비즈타운이 문을 열게 되면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 기업을 발굴해 경쟁력 있는 상품을 유통할 수 있도록 '창작-창업-성장'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 체계를 완성하게 됐다.

개소식은 21일 오후 4시30분 비즈타운 1층 복합문화공간에서 '글로벌 콘텐츠 중심도시, 부산콘텐츠비즈타

운'을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개소식에 앞서 1부 행사에서는 글로벌 콘텐츠 투자·기술 콘퍼런스가 진행된다.

첫 해외 발제자로는 드림웍스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제작사와 협업하고 있는 '툰포켓 스튜디오'의 대표 조 비탈레(Joe Vitale)가 글로벌 시청자를 위한 콘텐츠 제작 방향성을 잡는 노하우에 관해 발표한다.

이어 중국, 캐나다, 유럽 등 글로벌 미디어 유통을 담당하는 '리시엔터테이먼트' 부사장 씨씨첸(Cici Zheng)이 중국 애니메이션·영상시장에 대한 통찰을 전달할 예정이다.

콘퍼런스와 개소식은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볼 수 있으며, 행사 참가 신청은 온라인 폼을 통해 가능하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4곳 선정

여수시, 화순·영암·장성군 지정 내년부터 4~5년간 1220억 투입

전남도가 지역의 미래성장을 견인할 시·군 핵심 동력사업 육성을 위한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공모에 여수시와 화순군, 영암군, 장성군, 4개 시·군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은 ▲여수소섬-잇(Sum-it) 트레일 ▲화순 한국난 산업화단지 조성사업 ▲영암 전남 대표 K-컬처 지역 육성 영암 헤리티지의 재도약 프로젝트 ▲장성 원더랜드(Wonderland) 프로젝트다.

2025년부터 4~5년간 총 1220억 원을 투입해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여수와 화순은 2025년부터, 영암과 장성은 2026년부터 착수할 예정이다.

전남형 균형발전300 프로젝트는 시·군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도에서 지원하는 대규모 발전 프로젝트다.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 삶의 만족도 제고와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표를 두고, 개소당 총사업비 300억원 규모로 도비 60~70%를 지원하며 300억 원 초과분은 시·군에서 부담한다.

여수 섬-잇(Sum-it) 트레일 사업은 여수 만항동 일대에 바다레일바이크, 마래아트터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해양경관 명소화를 통해 여수관광 매력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화순 한국난 산업화단지 조성사업은 한국 춘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이양면 일원에 난초 미래산업육성센터 등을 설치하는 것이다.

/전남=양수영 기자

진주시, 상수도관 교체로 年 28억 절감

연 평균 58.5km 노후 상수도관 교체

경남 진주시는 민선7기 이후 노후 상수도관 교체를 통해 연간 28억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보고 있다.

진주시는 유수율이 낮고 노후도가 심한 천전·성북·중앙·상봉·신안·이현·판문동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해까지 매년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평균 58.5km 정도의 노후 상수도관을 대거 교체했다.

노후율이 2017년 46.2%에서 지난해에는 34.8%로 향상됐다. 유수율도 67.5%에서 75.6%로 높아져 연간 28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보고 있다.

또 2019년 환경부로부터 국비 160억원을 지원받아 진행 중인 '지방상



진주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공사현장

수도 현대화사업(노후상수관망)은 유수율이 낮은 광역상수도권역인 진성·사봉·일반성·이반성·지수면 지역을 대상으로 마을별 블록을 구축하고 노후상수관로(L=54km) 교체를 추진해 내년 준공을 앞두고 있다.

/진주(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통영시, 경남도 전지훈련 유치 실적 1위

총 243개 팀, 연인원 11.9만명 방문

통영시가 2024시즌 경상남도 시·군 전지훈련 유치 실적에서 1위를 차지하며 스포츠 메카로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 2024시즌 동안 축구 173개 팀, 농구 39개 팀, 육상 20개 팀 등 총 243개 팀, 연인원 11만9813명이 전지훈련을 위해 통영시를 찾았다. 시즌별로는 동계 시즌 10만4797명, 하계 시즌 1만5016명의 연인원으로 모든 시즌 통영이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전년 대비 3만8737명이 증가한 수치로 2024시즌 목표 달성률 141%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 효과는 90억원 상당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동계 전지훈련의 경우, 전년

대비 2만8439명이 증가하며 매우 큰 폭의 성장을 기록했다.

이는 통영의 겨울철 따뜻한 기온과 적극적인 전지훈련 유치 마케팅, 풍부한 스포츠 인프라, 숙소와 교통의 편리함 덕분에 것으로 분석된다.

하계 전지훈련 역시 1만298명의 증가를 보였다. 이는 통영시가 여름철에도 최적의 훈련 환경을 제공하고 관광 도시의 장점을 살려 훈련과 휴식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 통영시는 2025시즌에 전지훈련 유치 목표를 더욱 확대하고 전지훈련을 위한 인프라와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여 스포츠 메카로서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통영(경남)=손병호 기자

해남군

나라꽃 무궁화 명소공모 3위

해남군은 옥천면의 지강 양한묵 생가 일원 '옥천 무궁화 동산'이 산림청 주최 대한민국 제11회 나라꽃 무궁화 명소 공모에서 3위인 장려상에 선정되어 산림청장상을 수상했다.

산림청에서는 우리 역사와 함께한 나라꽃 무궁화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바로 알리고,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매년 나라꽃 무궁화 명소를 선정하여 무궁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있다.

옥천 무궁화동산은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유일한 호남 출신인 지강 양한묵 선생의 생가 일원에 지난 2018년 조성되었다.

/해남(전남)=이대호 기자 eoogh7505@

“연말 특수 잡아라” 주류업계, 한정판 출시 등 마케팅 올인

하이트진로 ‘크리스마스 에디션’
산타 두꺼비 연출 참여 콘텐츠 준비
롯데칠성음료 ‘새로’ 앞세운 마케팅
전통+현대 ‘새로구미’ 캐릭터 탄생
롯데마트·홈플러스
와인·위스키 대규모 할인행사 진행

연말을 앞두고 주류업계가 분주한 모습이다. 연말 한정판을 선보임은 물론, 수요가 늘어난 와인 판매에 속도를 내기 위해 할인 마케팅도 진행하는 등 연말 판매에 총공세를 펴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와 롯데칠성음료는 송년회 등 모임이 잦은 연말을 맞아 소주와 맥주 판매량 늘리기 위해 ‘진로 크리스마스 에디션’과 ‘테라 크리스마스 에디션’을 출시하고 두꺼비 활용 콘텐츠를 기획했다.

‘진로 크리스마스 에디션’은 진로의 캐릭터 두꺼비가 산타 모자와 목도리를 두르고 귀엽게 인사하는 모습을 연출, 라벨을 디자인했다. 18일부터 전국 가



아영FBC는 더현대 서울 ‘크리스마스 빌리지’에 와인 팝업 스토어를 오픈했다.

/아영FBC

정 채널과 일반 음식점, 술집 등 주류 판매 업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산타로 변신한 두꺼비의 활약은 유흥, 가정 시장에서도 이어진다. 디자인 스튜디오 ‘슈퍼픽션’과 협업한 ‘테라 크리스마스 에디션’은 가정용 453ml 캔과 유흥용 500ml 병으로 출시됐다.

아울러 MZ 취향을 저격하는 두꺼비 캐릭터를 활용한 영상 등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새로’를 앞세운 스토리텔링 마케팅을 이어간다. 롯데칠성음료는 ‘새로’ 출시 당시 구미호를 브랜드 엠베서더 캐릭터로 설정해 전통적 감성에 현대적 감각을 더한 ‘새로구미’ 캐릭터를 탄생시켰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몇년간 선호하

는 주류가 다양해졌지만 불경기에 소주와 맥주 수요가 늘었다”며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는 흐름이 두드러지면서 주류에서도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국산맥주가 강세”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마트가 올해 들어 지난 6일까지 주류 판매 실적을 분석한 결과, 국산맥주 매출 비중이 25.0%로 와인(22.3%)을 따돌리고 가장 높았다. 지난해 와인(23.9%)이 국산맥주(23.5%)를 꺾고 1위를 차지했는데, 1년 만에 다시 순위가 바뀐 것이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서도 와인의 인기가 주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와인 수입액은 지난해 대비 12.4% 감소했고 위스키는 11.7% 줄었다.

그럼에도 연말 시즌 수요가 상승하는 와인의 특성을 고려해 유통업계는 할인 행사를 펼치고 있다. 실제 지난해 롯데마트 와인 위스키 주류 전체 매출 중

테라 크리스마스 에디션 /하이트진로

20%는 연말을 앞둔 11~12월 발생한 바 있다.

롯데마트는 주류전문 매장 보틀병커 3개점(잠실점, 서울역점, 상무점)에서 오는 27일까지 와인, 위스키, 혼합주 총 1400여종에 대해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블랙빙커데이’를 진행한다.

홈플러스에서도 20일까지 대규모 와인·위스키 할인행사를 펼친다. 종합주류 기업 아영FBC는 프리미엄 와인 에라주 리즈 맥스의 대규모 할인행사 ‘믹스앤맥스’를 진행한다. 에라주리즈의 대표와인 맥스6종(카베르네 소비뇽, 샤르도네, 피노노아, 소비뇽 블랑, 쉬라, 카르메네르)를 2만원대로 구매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주류업계가 연말 막판 수요 잡기에 나섰다. 와인과 위스키의 경우 코로나19 시기보다 판매량이 줄었지만, 프리미엄이나 희소성 있는 와인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많고, 연말까지 꾸준히 찾는 이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CJ프레시웨이, 맛·효율 ‘Up’ 간편조리 급식 레시피 개발

보유 2000여종 중 올해 150종 추가
최근 불맛·마라 돈육볶음 등 소개

CJ프레시웨이가 급식 조리 효율을 높이는 간편조리 레시피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대량조리 시스템에 따른 업무 부담을 줄이고 음식의 맛과 서비스 효율을 동시에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간편조리 레시피는 ▲특제 소스 ▲양념육 ▲국탕용 베이스 ▲전처리 채소 등 조리효율화 식재료를 활용한 조리법을 일컫는다. CJ프레시웨이 보유 레시피는 2천여 종이며 올해 중으로 약 150종을 추가할 계획이다.

CJ프레시웨이는 급식 식단에 자주 활용되는 메뉴, 이용객이 선호하는 메뉴, 주문량이 많은 식재료 등 전국 점포에서 취합한 데이터를 분석해 메뉴와



간편조리 레시피 적용 메뉴.

레시피를 선정하고 개발에 돌입한다. 신규 레시피는 CJ프레시웨이 본사 구내식당에 적용해 테스트 기간을 거친다. 맛과 효율성 검증을 마친 후에는 영양사 및 조리사 대상 데이터 플랫폼 ‘메뉴관리시스템’을 통해 추천 식단과 조리 지침서 형태로 배포한다.

간편조리 레시피는 조리 공정을 줄이는 조리효율화 상품과 함께 소개한



/CJ프레시웨이

다. 일품 메뉴에는 풍미 가득한 특제 소스 상품을 제안하고, 국·탕 메뉴는 감칠맛을 내는 베이스 활용법을 소개하는 식이다. 매일 다른 식단을 제공하는 급식 서비스 특성을 고려해 메뉴 선정, 레시피 고안, 식재료 구매 목록 구성, 전처리 공정 생략 등 식사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고를 줄이고 운영 효율을 높인다는 취지다.

CJ프레시웨이는 최근 ▲불맛돈육볶음 ▲마라돈육볶음 ▲언양식불고기 등 다양한 일품 메뉴를 간편하게 완성하는 레시피를 소개했다. 육류 손질, 양념 배합 등 여러 단계의 준비 과정이 필요한 메뉴지만 ▲기사식당돼지불고기 ▲마라맛돼지불고기 ▲언양식소불고기 등 혼연 향과 양념이 배어 있는 양념육 상품을 활용하면 전처리 과정을 생략하고도 음식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활용 빈도가 높은 식재료는 PB 상품으로도 내놓는다. CJ프레시웨이 조리 효율화 상품 매출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평균 44%씩 늘었다. 식단 추천부터 상품 유통까지 토탈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신원선 기자



뚜레쥬르 ‘윈터 홀리데이 케이크’ 선택

뚜레쥬르가 19일 서울 중구 뚜레쥬르 제일제당센터점에서 ‘윈터 홀리데이 시즌 케이크’ 신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롯데마트 ‘스페셜 릴리즈 2024’ 단독 예약판매 진행

롯데마트가 위스키 애호가들을 위한 특별한 위스키를 준비했다. 롯데마트가 디아지오의 특별한 싱글몰트 위스키 8종으로 구성된 한정판 컬렉션 ‘스페셜 릴리즈 2024’를 유통 전 채널 중 단독으로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스페셜 릴리즈’는 조니워커, 기네스 등 유명 브랜드를 가진 글로벌 프리미엄 주류 기업 ‘디아지오’가 2001부터 매년 선보이고 있는 내추럴 캐스크스트렌스(원액 숙성 후 물을 섞지 않고 바로 병입하는 위스키) 컬렉션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싱글몰트 스카치위스키 숙성고에서 세계 최고의 위스키 장인들이 선정한 컬렉션으로 한정 수량 판매된다. 국내에서는 2009년 처음 선보인 ‘스페셜 릴리즈’는 한정 수량이라는 희소성에 각 컬렉션별 고유의 콘셉트가 적용된 특별한 디자인까지 더해지며 위스키 애호가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최빛나 기자 vitna@

정관장, 혈당케어 ‘지엘프로’ 1만세트 판매

2030세대에 호응… 출시 보름 성과

정관장이 지난 10월 출시한 혈당 케어 전문 브랜드 ‘GLPro(지엘프로)’가 출시 보름 만에 1만세트를 돌파하며 정관장 신제품 판매의 새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125년 정관장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는 혈당 케어 전문 브랜드 GLPro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기능성을 공식 인정받은 정관장 홍삼(KGC05pg)을 주원료로 한다.

출시 5일 만에 3100세트, 보름 만에 1만세트를 돌파하며 연매출 1400억을 넘는 ‘홍삼점 에브리타임’의 출시 초기 판매 수량보다 9배 정도 높은 수치다.

정관장은 GLPro가 2030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이 1만세트를 돌파한 비결이라고 보고 있다.

GLPro 더블컷의 20대 구매율은 2023년 정관장 제품 20대 구매율 대비 약 2배 이상 높은 수준을 보였다.

혈당에 관심이 많고 트렌드에 민감한 2030 고객은 특히 혈당에 체지방까지 케어할 수 있는 GLPro 더블컷을 주로 구매한 것. 2030들은 GLPro 코어 대비 GLPro 더블컷 제품 구매가 약 74% 이상 많은데, 특히 2030 여성 고객이 남성 고객 대비 약 41% 정도 많다.

KGC인삼공사는 정기적 운동과 식단 관리를 일상적으로 하는 2030세대들이 건강에 파고드는 헬스디깅(Health Digging) 트렌드에 힘입어 GLPro 인기가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신원선 기자

엘라스틴 ‘프로틴클리닉 10000 샴푸’ 인기

LG생활건강, 누적판매량 170만개

LG생활건강은 국내 1위 프리미엄 헤어 코스메틱 샴푸 브랜드 엘라스틴에서 출시한 ‘프로틴클리닉 10000 고영양 단백질 샴푸’ 제품군이 2022년 출시 이래 170만 개에 이르는 누적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프로틴클리닉 고영양 단백질 10000 샴푸’ 제품군은 샴푸, 트리트먼트, 헤어 세럼 등으로 구성됐고 올해 들어서 하루 평균 판매 개수가 3000개를 넘고 있다는 것이 LG생활건강 측의 설명이다. 지난 9월에는 국내 대표 e커머스 쿠팡에서 샴푸·린스 부문 1위에 등극하기도 했다.

LG생활건강에 따르면, 엘라스틴 ‘프

로틴클리닉 고영양 단백질 10000 샴푸’는 고가의 살롱 케어를 받고 느낄 수 있는 모발의 부드러움을 재현한 제품이다.

특히 이 제품은 저분자 단백질을 활용해 엘라스틴이 독자 구현한 핵심 성분을 10000ppm 함유하고 있다. 또 엘라스틴만의 단백질 영양 공급 특허 기술이 적용돼 손상 모발을 보호하는 기능을 갖췄다. 이밖에 아미노산 17종, 콜라겐 등 단백질 성분과 아르간 커널, 코코넛 야자 등 각종 식물 유래 오일이 머릿결의 윤기를 더해준다.

LG생활건강은 향후에도 잦은 펌과 염색, 드라이로 갈라지는 모발로 인한 고객들의 고민에 중점을 두고 기술과 품질 향상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에슬레저 열풍 쪽!... 안다르·젝시믹스, 글로벌 전략 통했다

해외 진출이 이끈 3분기 호실적
안다르, 3분기 영업익 170% 급증
제품 다변화로 글로벌 성장 가속
젝시믹스, 3분기 해외 실적 77%↑
현지화 전략으로 성공 사례 구축

국내 에슬레저 브랜드의 양대산맥으로 불리는 안다르와 젝시믹스가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매출 상승을 기록하고 있다. 2분기 성장이 사업 다각화 전략의 성과였다면, 3분기 실적에는 성공적인 글로벌 시장 공략이 더해졌다는 분석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안다르는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70% 오른 122억원을 기록하면서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매출액 역시 72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했다.

젝시믹스는 분기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 젝시믹스의 모회사 브랜드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매출액은 656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8%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45억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66% 올랐다.

안다르와 젝시믹스는 지난 2분기에



안다르 러닝 제품 모델 착용.

/안다르

도 우수한 실적을 거뒀다. 안다르는 지난 2분기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한 영업이익 105억원을 달성했다. 젝시믹스 역시 영업이익 119억원을 달성하며 같은 기간 대비 136% 상승했다.

지난 2분기 두 에슬레저 기업의 실적을 견인한 주요인은 제품 영역의 다변화 전략이었다. 안다르는 올해 상반기 언더웨어로 제품 시장을 확대했다. 이외에도 스웜웨어, 테니스웨어의 남성(맨즈) 제품 라인업을 강화하면서 매출 성장을 도모했다.

젝시믹스도 신규 제품군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하면서 2분기 실적 성과를 달성했다. 젝시믹스에 따르면 지난 2024년 2분기 전년 대비 남성제품 카테고리 매출액이 89% 상승했으며, 골프 제품군 역시 같은 기간 대비 142% 매출액이 증가했다.

2분기에서 이어진 3분기 3분기 호실적에는 글로벌 시장 공략이 더 비중 있게 작용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안다르는 지난 8월 일본 나고야에 팝업스토어를 열며 글로벌 소비자 접점

확대에 나섰다. 도쿄와 오사카 팝업에 이어 세 번째 팝업스토어로 행사 기간 동안 오픈런은 물론 운영 기간 대기 줄이 이어졌다. 지난달에는 싱가포르에 위치한 다카시마야 백화점에 안다르 단독 2호점을 오픈하며 글로벌 소비자 공략에 나섰다.

젝시믹스도 공격적인 해외 시장 공략으로 3분기 성장세를 이어갔다. 해외 현지 매장 등의 운영을 통해 해외 실적이 전년 대비 77% 이상 성장했다는 게 젝시믹스 측 설명이다. 젝시믹스는 중국 7개, 일본 4개 정식 매장을 포함해 해외 총 20개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안다르 관계자는 “안다르는 전략적으로 에슬레저 타겟 고객층이 넓은 고소득국가 중심의 글로벌 진출 전략을 수립했다”며 “해외 시장에서 안다르의 성장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 관계자는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도 주력사업에 매진하며 또다시 괄목할 만한 매출 신장을 만들어냈다”며 “기업의 가치와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대웅제약

‘먹는 비만약’ 개발 속도

대웅제약이 주사제 중심의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먹는 비만약’ 개발에 역량을 쏟는다. 대웅제약은 GLP-1 수용체와 GIP 수용체에 작용하는 ‘이중 작용제’ 신약물질을 발굴하고 국내 특허 출원을 마쳤다고 19일 밝혔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GLP-1과 GIP는 혈당과 체중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다. GLP-1은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 혈당 상승을 막고, 뇌에 작용해 식욕을 억제한다. GIP는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고 지방 에너지 소비를 촉진한다.

이처럼 이번에 발굴한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은 식욕 억제와 지방 연소를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기전을 갖춰, 비만 치료제의 체중 감량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대웅제약 측의 설명이다.

대웅제약은 GLP-1 수용체와 GIP 수용체를 이중으로 표적화하면서도 저분자로 이뤄진 ‘경구용 이중 작용제’를 개발해 기존 치료제들이 가진 한계점을 극복할 계획이다. 저분자 기반으로 개발할 경우 고분자 기반 의약품 보다 생산이 용이하고 비용도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대웅제약은 주사제가 아닌 경구제인 ‘알약’ 형태로 처방한 비만 치료제가 환자들의 편의성뿐만 아니라 복용 순응도, 만족도까지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삼성바이오에피스 오피비즈 유럽 허가로 시장 선점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로부터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오피비즈’ 품목 허가를 최종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오피비즈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루센티스 바이오시밀러 ‘바이오비즈’에 이어 두 번째로 개발한 안과 질환 치료제다. 지난 9월 유럽 의약품청(EMA)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로부터 품목 허가 ‘긍정의견’을 획득한 후 약 2개월 만에 최종 품목 허가가 이뤄졌다.

오피비즈는 황반변성 등 안과 질환을 적응증으로 한다. 황반변성은 안구 망막 중심부의 신경조직인 황반의 노화, 염증 등으로 인해 시력에 장애가 생기는 질환인데 심할 경우 실명을 유발할 수 있어 황반변성의 진행을 늦추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현재 유럽 의약품 시장에서 총 8종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상업화했고 오피비즈 유럽 허가로 이미 상업화된 8종에 이어 9번째 허가 승인을 획득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앞서 지난 5월에는 미국 식품의약품(FDA)에서 오피비즈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

/이청하 기자

K뷰티 디바이스 경쟁 심화... 브랜드별 기술력 격돌

에이피알, 휴대성·가성비 강화
파마리서치, 온라인 유통망 확대

‘뷰티 디바이스’ 인기가 지속되며 제품군들의 각축전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 이미 포화된 시장이지만 품질과 가격 경쟁력에 대한 소비자 기대가 높아지면서 연령대와 구매력에 따른 브랜드 출시는 계속될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뷰티테크 기업 에이피알은 신제품으로 부스터 프로 미니를 공개했다. 에이피알 대표 뷰티 디바이스 ‘부스터 프로’의 핵심 기능을 집약하면서 휴대 가능한 편리함과 합리적인 가격을 고루 갖춘 실속형 제품이다.

‘부스터 프로 미니’에 탑재된 부스터 기능은 피부 광채 개선에 집중했다. 에



메디큐브 에이피알 신제품 ‘부스터 프로 미니’는 핑크와 화이트 두가지 색상으로 구성됐다.

/에이피알

이피알이 독자 개발한 피부에 전기 진동을 주는 전기전공법 기반 기술이 활용됐다. 에이피알은 부스터 프로 미니

가 1회 사용 시 최대 270만 회의 진동을 일으키면서 화장품 유효성분 흡수율을 손 사용 대비 약 5배 높인다고 설명했다. 에이피알은 부스터 프로 미니 판매가를 10만원 초반대로 설정해 소비자 접근성을 높였다.

지난 3분기 에이피알 뷰티 디바이스 사업 매출은 74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2% 증가했다. 전체 매출에서 뷰티 디바이스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3%에 달한다. 분기 판매량은 33만 4000대로, 처음 30만대를 넘어섰다.

뷰티 디바이스 시장에서 브랜드간 경쟁은 더욱 활기를 띠는 모습이다.

비건 뷰티 브랜드 ‘달바’는 최근 홈뷰티 디바이스 시장에서 신제품을 내놓으며 경쟁 대열에 합류했다. 달바에 따르면 지난 10월 29일~31일 네이버

라이브 마켓에서 달바의 ‘시그니처 올빼미 더블 샷’은 1시간 만에 조회수 62만, 3일 만에 약 5억원의 매출 등의 성과를 거뒀다.

에스테틱 전문기업 파마리서치는 온라인 유통망을 넓혀 소비자 접근을 확대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파마리서치는 지난 10월 CJ온스타일 첫 방송에서 자사 더마 화장품 브랜드 리쥬란 코스메틱의 ‘리쥬리프’가 전량 매진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내 뷰티 업계 관계자는 “뷰티 디바이스의 인기로 인해 ‘뷰티 테크’가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시장 환경”이라며 “브랜드마다 높은 제품력에 가격 경쟁력까지 더하고 있다보니 이미 포화된 시장이면서도 소비자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분위기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SK바이오팜, 방사성의약품 연구 역량 강화

SK바이오팜은 지난 18일 한국원자력의학원과 약티늄-225(Ac-225) 기반의 방사성의약품 공동연구 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이 공동연구 계약을 맺은 것은 국내 최초이며, 이번 계약을 통해 양사는 방사성의약품 기반의 혁신적인 전임상 후보물질을 1건 이상 도출하고 새로운 암 치료 타겟에 대한 유효물질을 발굴할 계획이다.

약티늄-225는 강력한 알파 입자를 방출해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효과를 지닌 방사성 동위원소로, 차세대 암 치료제 개발의 핵심 물질로 주목

받고 있다. SK바이오팜은 미국 테라파워사와 약티늄-225 공급 계약을 체결해 안정적인 공급원을 확보했으며, 이미 이 중 일부를 들여와 현재 전임상 연구에 돌입한 상태이다.

SK바이오팜은 최근 방사성의약품 사업 로드맵 발표에서 오는 2027년까지의 3개년 계획을 통해 글로벌 방사성의약품 리딩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이번 공동연구를 통해 SK바이오팜은 2027년 임상 허가계획(IND)을 제출할 예정이며, 방사성의약품 개발 초기 단계의 경쟁우위를 선점할 예정이다.

/이청하 기자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유효성 입증

美 학회서 악템라·프롤리아 3상 발표

셀트리온은 2024 미국류마티스학회 연례회의(ACR)에서 악템라 바이오시밀러 ‘CT-P47’과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CT-P41’의 글로벌 임상 3상 데이터를 추가로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

미국류마티스학회는 전 세계 최대 류마티스학회 중 하나로 올해 연례회의는 이달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됐다.

먼저 셀트리온은 류마티스 관절염(RA) 환자 47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CT-P47 글로벌 임상 3상 52주 결과를

통해 CT-P47 교체 투여(switching) 환자군서 유효성을 입증했다. 셀트리온은 CT-P47 투여군, 오리지널 의약품 투여군 두 그룹으로 나눠 24주 동안 치료하고, 24주차에 오리지널 의약품 투여군을 CT-P47로 교체 투여한 환자군과 오리지널 의약품 투여 유지군으로 무작위 배정했다. 이후 52주까지 오리지널 의약품에서 CT-P47로 교체 투여한 환자군, 오리지널 의약품 투여 유지군, CT-P47 투여 유지군 등 세 그룹 간 2차 평가지표에서 유효성, 약동학, 안전성, 면역원성에 차이가 없음을 확인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100호 어린이집 완공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하나의** 약속 100호 어린이집으로 완성되었습니다

희망이 처음 출발한
2019년 거제 1호 아주하나어린이집

어린이집이 열릴 때마다
아이들의 꿈도 자라나고

드디어 2024년 봉화 100호 석포하나어린이집에
웃음이 하나 가득 찼습니다

대한민국 아이들이 모두 행복한 그 날까지
하나금융그룹이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100호 봉화군 석포하나어린이집



석포하나어린이집



꿈을 담은 100호 어린이집의 완공으로
7,519명 어린이 돌봄 지원

누구 하나 소외 없이, 평등한 보육을 약속하는 어린이집
장애아 대상 18개소 / 농어촌 지역 30개소 건립

100호 어린이집으로 이루는 상생
1,510명 일자리 창출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기보, '한국에너지대상' 단체부문 국무총리 표창

기술보증기금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2024 한국에너지대상'에서 단체부문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을 통해 녹색 금융 활성화에 기여한 것이 주효했다. 박주선 기보 전무(가운데)가 회사 관계자들과 국무총리 표창 수상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술보증기금



금투협, 김포 '소망의 집' 방문… 600만원 전달

금융투자협회는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인 김포시 '소망의 집'을 방문해 김장 담그기 등 봉사활동을 펼치고 후원금 600만원을 거울나기 생필품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후원은 매칭그랜트 후원금(임직원들의 급여에서 일부를 매달 모아 적립한 기부금과 협회 지원 기부금을 더해 조성한 기금)을 이용한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금융투자협회



메인비즈協-산업은행, '경영혁신형 중기' 지원 강화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는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지원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왼쪽 2번째부터)김명진 메인비즈협회장,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메인비즈협회



SK에코플랜트, 지역 아동양육시설에 차량 기부

SK에코플랜트는 최근 지역 아동양육시설 선덕원에 차량 3대를 지원하는 '미래세대 차량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원된 차량은 아이들의 통학 및 외부 체험학습을 위한 단체이동 등에 활용될 계획이다. /SK에코플랜트



도미노피자 "아동학대 예방 함께"... 피자 나눔활동

도미노피자는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앞두고 전일 경기도의 정부에 위치한 대한사회복지회 의정부영양원에 파티카를 통해 피자를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피자 후원은 도미노피자와 대한사회복지회와의 협업을 통해 이뤄졌으며, 보육교사들과 아동들에게 즉석에서 만든 따뜻한 피자과 함께 훈훈한 마음을 전달했다. /도미노피자

삼성전자, '클리오 스포츠 어워드'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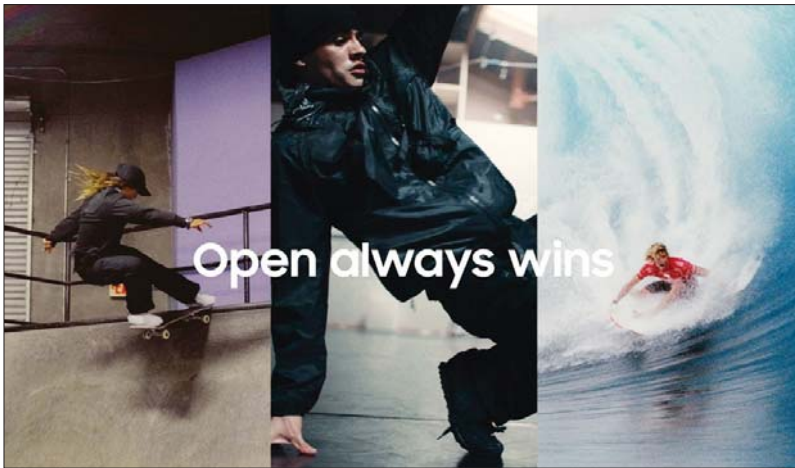
파리 올림픽·패럴림픽 캠페인 동상
다양한 마케팅으로 전세계 소통

삼성전자가 개방성(Openness)을 기반으로 전세계인들과 소통하는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선보인 노력을 '2024 클리오 스포츠 어워드'(2024 Clio Sports Awards)에서 인정받았다.

삼성전자는 19일 2024 파리 올림픽·패럴림픽 캠페인 다큐멘터리 3부작 'Open always wins'(열린 마음은 언제나 승리한다)가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2024 클리오 스포츠 어워드에서 필름(Film) 부문 동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다큐멘터리 3부작은 2024 파리 올림픽 정식 종목인 ▲스케이트보드 ▲브레이크잉 ▲서핑의 독창적인 문화와 가치를 소개했다. 2024 파리 올림픽·패럴림픽 메시지인 개방성(Openness)을 주제로 3개 종목이 각각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는 여정을 담았다.

삼성전자의 영국 법인과 인도 법인이 제작한 스포츠 캠페인도 각기



삼성전자의 2024 파리 올림픽·패럴림픽 캠페인 다큐멘터리 3부작 'Open always wins' 타이틀 이미지. /삼성전자

다른 부문에서 수상하는 영광을 얻었다.

갤럭시 Z 플립5를 활용해 몰입감 넘치는 스케이팅보딩 경험을 선보인, 삼성전자 영국 법인의 '삼성 플립 파크'(Samsung Flip Park) 캠페인은 2024 클리오 스포츠 어워드 디지털·모바일(Digital·Mobile) 부문에서 은상을 수상했다.

인도 스포츠 영웅인 니라즈 초프라(Neeraj Chopra)와 함께 제작해 화제를 일으켰던 삼성전자 인도 법

인의 캠페인은 제작(Direction)과 편집(Editing) 부문에서 각각 동상을 수상했다.

최승은 삼성전자 MX사업부 마케팅팀장 부사장은 "삼성전자는 2024년 파리 올림픽 캠페인을 통해 열린 마음으로 혁신하고 도전하는 모습을 담은 스토리를 선보였다"며 "앞으로도 개방성을 기반으로 전세계인들과 소통하는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SKT, 'AI 펠로우십' 6기 수료… 1200만원 포상금

미래 AI분야 인재육성 박차

SK텔레콤은 미래 AI(인공지능) 분야 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인 'SKT AI 펠로우십(SK T AI Fellowship)' 6기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

SK텔레콤 AI 펠로우십은 AI를 공부하는 대학(원)생들이 AI를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고 현직 개발자와 멘토링을 진행하는 등 실무 경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SK텔레콤은 차세대 AI 인재 양성을 위해 2019년부터 6년째 프로그램을

이어오고 있다.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SK T타워 수퍼스홀에서 'SKT AI 펠로우십' 수료식을 개최하고 우수 연구팀에 포상금 총 1200만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SK텔레콤 AI 펠로우십 6기는 총 15개 팀, 44명의 학생들로 운영됐다. 학생들은 지난 5월부터 ▲생성형 AI ▲컴퓨터 비전 및 미디어 ▲네트워크 인프라 AI의 세 가지 AI 기술 영역 중 하나를 선택해 연구과제를 수행했다.

이번 기수의 우수 연구팀은 총 4

팀으로 ▲AI 데이터 분석이 도입을 위한 자동화된 데이터 인텔리전스를 연구한 고려대팀 ▲생성형 AI 기술을 이용한 보이스 피싱 탐지 기술을 개발한 성신여대팀 ▲비디오 기반 광고 콘텐츠 레이아웃 제너레이션(Layout Generation)을 연구한 서울대팀 ▲5G 그린 AI 알고리즘 개발을 연구한 경희대·한양대팀이다.

우수 과제로 선정된 4팀은 SK텔레콤 AI 펠로우십을 통해 연구 논문을 작성하고 특허를 다수 출원했으며, 이를 상용 서비스에 적용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황현식 대표, 카이스트 '올해의 동문'

(LG U+)

"고객중심 경영으로 혁신 주도"

LG유플러스는 자사 황현식 대표(사진)가 KAIST(카이스트) 공과대학 '2024년 올해의 동문'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2014년 제정된 KAIST 공과대학 올해의 동문상은 산업기술 발전에 기여하거나 학문적 성취로 학교의



명예를 높인 동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제8회 수상자로 선정된 황현식 대표는 1987년 카이스트 산업공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KAIST 공과대학은 "황현식 대

명예를 높인 동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제8회 수상자로 선정된 황현식 대표는 1987년 카이스트 산업공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KAIST 공과대학은 "황현식 대

카카오, ISO 22301 인증

카카오가 ISO(국제표준화기구)로부터 비즈니스 연속성 경영 체계를 인정받았다.

카카오가 지난 13일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 아지트에서 ISO 22301 인증서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수여식에는 한국경영인증원(KMR) 황은주대표이사과 카카오프라기스 고우찬 성과리더를 비롯한 관계자가 참석했다.

ISO 223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비즈니스 연속성 관리(BCMS)를 위한 표준이다. 장애 및 재난발생으로 서비스가 중단되는 상황에서 체계적 대응과 신속한 복구로 서비스를 정상화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갖춘 기업에 부여된다.

/김서현 기자 seoh@

현대오토에버

AI 경영시스템 확립

현대오토에버가 인공지능(AI) 경영 관련 국제표준 인증을 획득했다.

현대오토에버는 19일 자사의 인공지능기술팀이 국제표준인 '인공지능(AI) 경영시스템(ISO/IEC 42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AI 기술 전문조직의 리스크 관리 역량과 신뢰성을 입증했다.

AI 경영시스템 인증은 기업이 AI 기반 제품·서비스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게 개발, 구현, 운영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이번에 현대오토에버가 획득한 AI 경영시스템 분야는 '조직'이다. 지난 6월에는 현대오토에버의 '스마트 비전'이 제품 영역에서 AI 경영시스템 인증을 받기도 했다.

/양성운 기자 ysw@

롯데웰푸드-도로공사

졸음운전방지 캠페인

롯데웰푸드는 전일 경기 하남시에 위치한 한국도로공사서울경기본부에서 졸음운전방지 안전캠페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안전캠페인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롯데웰푸드는 이번 협약의 슬로건인 '졸음 껌 씹고 안전 운전 하세요' 문구를 졸음번쩍뽀 제품에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롯데웰푸드는매송휴게소(목포방면) 내에 '졸음번쩍 캡슐부스'를 설치한다. 졸음번쩍 캡슐부스는 산소발생기를 설치하고, 간단한 게임을 통해 방문객들이 졸음을 깰 수 있도록 도와준다. /신원성 기자 tree6834@

인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서기관 승진 △운영지원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이은정

부음

▲박복순씨 별세, 한상덕(전 한림대 교수)·상화(한스스포츠 대표)·상범(전 LG 디스플레이 대표이사 부회장)·상애·혜석씨 모친상= 18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2호실, 발인 21일. 02-2258-5975.

서울시, 22일 '가족돌봄청년 포럼' 개최

'함께하는 변화' 주제

공공과 민간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가족돌봄청년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나아가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련된다.

서울시복지재단은 22일 오후 2시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 라이브홀에서 '2024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포럼'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가족돌봄청년, 함께하는 변화'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가족돌봄청년을 둘러싼 사회적 변화를 중심으로 당사자, 민간기관, 공공기관 차원에서의 대응을 조명한다.

포럼은 가족돌봄청년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hjk1@

이재형 · 신성록

MUSICAL

SWING DAYS

암호명 A

2024.11.19 ~ 2025.02.09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45년 한우물... ‘명문장수기업’ 10개社 등극

중기부, 업력 45년 이상 명문기업 선정
올해 8대1 경쟁률... 선풍식품 등 10개社
가업 이어 지속성장, 기업에 본보기 될 것

선풍식품, 금성출판사 등 10개사가 명문장수기업에 새로 이름을 올렸다. 이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은 2017년 처음으로 6개사에서 시작해 올해까지 총 53개사로 늘어났다. 중기부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9회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엔 당초 82개사가 명문장수기업에 신청해 8대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명문장수기업은 국내 업력 45년 이상 중소·중견기업 1만6743개사 가운데 신청을 받아 사회적 책임과 경제적 기여, 연구개발(R&D) 등 혁신활동 등을 종합평가해 선정한다. 올해에는 중소기업중앙회 금성출판사, 대양전기공업, 동미전기공업, 성일에스아이엠, 천연식품, 중견기업에선 금용기계, 리노공업, 선풍식품, 씨티알, 케이피에프가 명단에 올랐다.



(왼쪽 6번째부터)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9회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수여식’에서 수상기업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금성출판사는 국내 대표적인 교과서 출판기업으로 학습지 ‘푸르넷’과 영어프로그램 ‘잉글리시 버디’ 등 에듀테크 프로그램을 개발, 19년 연속 학부모들이 뽑은 최고의 교육브랜드로 선정되는 등 미래 교육에 앞장서고 있다. 대양전기공업은 선박용 조명기기 국산화를 시작으로 국내 최초, 세계에서 4번째로 바다의 97%를 탐사할 수 있는 6000미터급 무인잠수정 기술을 개발해 한국이 세계적인 해양강국으로 발돋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77년 업력을 바탕으로 간장업계 1위를

수성하고 있는 선풍식품은 우리 장과 발효 연구로 ‘요리에센스 연두’, ‘폰타나’ 등 독립브랜드를 선보이며 우리의 식문화를 해외에 알리고 있다. 오영주 장관은 “ 그동안 오일쇼크,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숏한 어려움 속에서 가업을 이어 지속성장한 명문장수기업이야말로 많은 기업들에게 본보기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중소·중견기업이 세대를 이어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승계 지원과 함께 명문장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발굴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텐텐과 성장한 소비자, 한미약품 갈등 바라보며



기자 수첩

이 청 하
(유통&라이프부)

최근 몇 년간 유통 업계 전반에서 레트로 열풍이 지속되고 있다. 추억을 소환하는 유행은 복고풍을 넘어 새로운 문화로 진화했다. 1020세대에게는 신선한 자극과 재미를, 30대 이상 세대에게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요소들이 재조명 받는다. 특히 1990년대와 2000년대에 어린 시절을 보낸 세대가 성인이 되자 그들이 경험했던 아이템들도 소비 시장을 휩쓸고 있다. 이러한 소비 흐름을 반영한 뷰티 브랜드의 경우, 국내 화장품 시장에 캐릭터와 협업한 한정판 제품을 내놓았다. 국산 토종 캐릭터인 1983년생 ‘둘리’부터 ‘쿠로미’로 세대 교체에 성공한 일본 산리오의

원조 캐릭터 ‘헬로키티’, 듣는 순간 기분을 설레게 하는 주제곡까지 사랑받은 ‘카드캡터 체리’ 등이 속속 다시 등장해 소비자 인기를 끈다. 레트로 감성은 제약 시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한미약품 어린이 영양제 ‘텐텐’이 대표적이다. 텐텐은 한미약품이 1994년 미니텐텐이라는 이름으로 출시한 일반의약품이다. 당시 빨간색의 딸기향을 갖춘 이 제품은 길다란 빨간색 원통에서 하나씩 몰래 꺼내 먹으며 쫄쫄한 맛과 그 특별한 기분을 즐겼던 어린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후 한미약품은 텐텐 성분을 강화하고 복용 대상을 전 연령대로 확장해, 어린이와 성인 모두를 폭넓은 소비자층으로 확보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추억과 함께 자리 잡은 텐텐과 한미약품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한

미약품 창업주 임성기 회장이 타계하면서 빈 자리에서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갈등이 커졌다. 둘로 갈라진 갈등의 주체들은 창업주가 평생 실천한 신약개발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하면서도 싸움은 그치지 않는다. 창업주 철학을 따른다면, 한미약품의 발전은 단순히 고(故) 임성기 한미약품 창업주 이름에 의존한 것이 아니다. 또 한미약품 오히려 일가만이 누려야 할 것도 아니고 경영권 싸움의 소재가 되어서는 더욱 안 된다. 현재 연구개발에 집중하며 성과를 거두고 있는 한미약품은 신약개발과 같은 도전적인 과제를 이룩하기에 앞서, 텐텐을 사랑한 평범한 소비자들 곁에서 오랜 시간 신뢰를 쌓아온 국내 대표 제약 회사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 가치가 한미약품의 가장 큰 자산임이 경영권 싸움에 가려지지 않기를 바란다. /mllee236@

오늘의 운세 11월 20일 (음 10월 20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주변 정리로 심신의 안정을 취하라. 48년생 큰 그림을 그려나 현실은 만만치가. 60년생 사소하게 시작된 연쟁이 배반을 일으킨다. 72년생 친구와 의견 차이로 약간의 손해가 있을 수 있다. 84년생 빌려준 돈이나 선물이 들어온다.



37년생 손톱 밑 작은 가시로 마음고생. 49년생 평소 예의 바른 행동이 작은 허물을 덮어준다. 61년생 구설수를 조심하고 특히 가족과의 대화에 주의. 73년생 오후에 친구들과 과한 음주는 조심히. 85년생 헛된 욕심이 없어 밝게 살아왔기에.



38년생 분실수가 있으니 사람 많은 곳은 조심. 50년생 근거 없는 자만심으로 좋은 기회를 놓친다. 62년생 내 것이 작아 보여도 소중하게. 74년생 시작하다 보면 생각의 폭이 드넓어진다. 86년생 무리일지라도 시작한 일은 끝을 봐야 한다.



39년생 마음이 울적해도 음주는 주의. 51년생 노력의 결과가 생각만큼 나오지 않는다. 63년생 가뭄이 해결되듯 일이 잘 풀린다. 75년생 좋은 일은 누구나 알 수 있게 알려서 활용. 87년생 자신의 시간을 뒤돌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40년생 유쾌하고 즐거운 일이 넘친다. 52년생 일이 어려우나 주변의 도움으로 해결. 64년생 웅따와의 거래가 순탄치 않다. 76년생 사랑 타령으로 고집을 세우면 사회적 인발전은 더더진다. 88년생 두 가지가 다 좋을 수 없으니 하나는 양보.



41년생 우물을 찾았으나 두레박이 없으니 답답. 53년생 분수에 맞춘 약속을 소중히 하도록. 65년생 믿음을 갖고 기다리면 좋은 결과. 77년생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이니 자신감을 가지자. 89년생 매화가 피었다고 겨울이 끝난 것은 아니다.



42년생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동. 54년생 상대의 단점을 말하면 내게 돌아오니 말조심 할 것. 66년생 의견통일이 어려우니 중심을 잘 잡자. 78년생 여럿을 크게 합치는 대동단결이 있으면 이뤄질. 90년생 믿어주는 사람이 많으니 행복.



43년생 발등을 찌는 것은 내 탓이다. 55년생 너무 방만하면 위험에 빠지기 쉽다. 67년생 소박해도 능력이 있으니 즐거움이 따라온다. 79년생 도전할 기회가 오니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 91년생 오후 유혹이 많은 날이니 자중자해야시길.



44년생 계획에 없던 지출이 생기니 과소비를 주의해야. 56년생 욕심만 버리면 기분 좋은 하루. 68년생 판단력이 흐려지니 도장을 찍을 때는 신중하. 80년생 남이 던져주는 희망에 기대지 마라. 92년생 무관심했던 자녀의 특기를 잘 살펴보라.



45년생 남동쪽으로 역마의 운이 있다. 57년생 자신 없는 일을 맡아 종일 마음이 불편할 것이다. 69년생 나만이 아니라 누구나 아픔은 있다. 81년생 떠나기도 어렵고 머무르기는 더 어려운 상황. 93년생 손님이 오니 즐거운 소식을 들고 온다.



46년생 능력 이상의 일을 해도 무리가 없다. 58년생 누구에게나 지고도 이기는 법이 있다. 70년생 주석에는 조금함이 화를 부른다. 82년생 경험은 세상살이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 94년생 보기 싫던 사람도 아쉬울 때가 있으니.



47년생 어느 구름에 비가 들었는지 모른다. 59년생 충언도 사람을 바가며 따라야 하는 법. 71년생 운이 상승하니 용기를 내서 일을 추진. 83년생 복권에 당첨되려면 돈 주고 복권을 사야지 않겠는가. 95년생 앞에 이익이 있으나 발견하지 못한다.



김상회의四季

머피 자기암시

머피가 다시 살아서 온다면 적극적으로 머피의 법칙에 대해 피력할 것만 같다. 많이 불운하거나 불행한 일에 대하여 쓰는 것은 아니더라도, 가볍게 재수없을 때 쓰는 의미미긴 해도 머피의 법칙과 같은 일이 발생하면 이를 징크스로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그의 의도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머피의 실험과정에서 발생한 해프닝에 대해 머피의 상사였던 로버트 매튜스라는 사람은 “우주가 실제로 우리를 반대한다(Universe really is ‘against us’)”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뭔가 상황이 달라진다. 머피의 의도와 설명과는 달리 그는 뭔가 인간의 힘으로 제어되지 않는 어떤 미지의 힘이 일정 부분에서 실제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저서 ‘머피 법칙의 과학’ (The Science of Murphy’s Law)에서 밝히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머피의 법칙을 재해석한 로버트 매튜스의 견해에 동감하는 것이다. 인간들은 만물의 영장이라 자부하면서도 자연에 대한 무의식적인 두려움과 경외심이 있다. 자연 앞에서 인간은 작은 미물일 수밖에 없는 것도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어떤 거대한 힘이 우주와 천지에 작용하는 에너지장이 작용하고 있음이다. 원래적 머피의 법칙처럼 뭔가 안 좋은 운기의 대운이나 신살, 패가 보이면 사람들은 풀부터 죽는다. 그러나 그 패에 눌러버리면 이것이 바로 머피의 법칙이 되어버린다. 암시가 굳어져 스스로 부정적 기운을 다지게 된다. 비가 온다는 예보 자체는 불운이 아니다. 들고도 우산 준비를 못 하는 것이 불운이니 부정적 자기 암시를 가져서는 안된다. 부정적 인식은 마음속에 그림자를 남기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실제로 일은 끌림의 법칙처럼 작용한다. 마음은 훈련할 수 있고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다. 부정적으로 인식된 머피의 법칙은 던져버리자.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555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659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결합형스도쿠

153종

컬러스도쿠110

주사스도쿠 120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도의 월드파일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9	1	7	8	9	6	2	4	8
4	9	6	2	8	9	6	7	1
8	6	2	4	1	7	9	6	9
1	7	8	4	2	6	9	6	2
8	6	9	7	2	9	8	1	4
2	4	8	1	6	9	8	9	7
6	2	1	9	7	4	9	8	6
7	8	9	8	1	4	2	6	9
9	8	4	6	8	2	1	7	9

9	7	8	4	8	1	2	9	6
9	1	4	9	6	2	8	7	8
6	2	8	9	7	8	4	1	9
4	6	9	2	1	8	8	9	7
8	8	1	7	9	4	9	6	2
7	9	2	8	9	6	1	4	8
1	4	9	8	2	7	6	8	9
2	9	6	1	8	9	7	8	4
8	8	7	6	4	9	9	2	1

AI교과서 등 교육개혁 순항... 연내 유보통합 법적근거 마련

尹 정부 임기 반환점

교육부, 교육분야 성과·계획 발표
학교 디지털 인프라 구축 막바지
“내년부터 ‘RISE 체계’ 본격 가동”

교육부가 내년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 학생 1인 1기기를 완비했다. 일각에서 ‘구독료 부담’ ‘학생 미디어 노출’ 등 우려가 제기됐지만, 정부는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완료에 이어, 전국 시도교육청에 각 테크센터를 운영하고, 교실 무선 인터넷 증속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19일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그간의 교육분야 정책 추진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를 ‘교육개혁 원년’으로 선언하고 ‘교육의 힘으로 사회 난제 해결’이라는 비전 아래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목표로 3대 분야, 9대 과제를 정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교육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밝혔다. /교육부

해 추진해 왔다.

교육 현장 최대 화두로 꼽히는 AI 디지털교과서는 내년 초·중·고교에 예정대로 도입한다. 교육부는 2025년 초등학교 3·4학년, 중·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영어·수학·정보 교과에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한다. 이후 단계적으로

도입 과목과 학년을 확대해 2028년에 모든 과목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29일 첫 검정교과서를 선보일 예정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날 “내년 3월 도입예정인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을 완료했다”라며 “이달 말 검정 심사 결과 발표가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프라 구축도 마무리 단계다. 오 차관은 “AI 디지털교과서 적용을 위해 필요한 학생 1인 1기기도 완비했고, 전국 교실의 무선 인터넷도 최대 10기가(G)까지 증속도 추진하고 있다”라며 “1만 여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선도교사 연수도 실시, 학교 디지털 인프라 전담인력인 디지털튜터 1200명도 양성하고, 시도교육청별 테크센터도 운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만 3~5세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질적 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유보통합은 올해 말까지 법적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교원 자격, 설립·운영 기준 등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기준을 확정해,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을 통합한 법을 의미한다.

오 차관은 “교육개혁의 첫 번째 분야는 바로, 보육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국가책임 교육·돌봄’”이라며 “지역단위의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체계를 교육청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도 연내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초등 돌봄을 확대 개편해 진행 중인 ‘늘봄학교’는 참여 학부모 80% 이상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늘봄학교는 방과 후 학교에서 돌봄과 교육을 받는 서비스다. 올해 초등 1학년 희망자 29만3000명이 2시간 무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지원 대상이 초2까지 확대된다.

대학 분야에서는 교육부의 대학재정 지원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지자체는 대학과 협력적 거버넌스에 기반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 체계)가 구축된다. 이에 따라 연간 총 2조여원의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권한은 광역시도지사에게 이양된다.

오 차관은 “지나해부터 7개 시도에서 시범운영 중이며, 내년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본격 가동할 예정”이라며 “17개 시도에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지역라이즈센터를 지정하는 등 지역 추진체계 구축이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여의도 선착장 조성사업 논란

“공정성 무너져” vs “지나친 흠집내기”

〈서울시의회〉

〈오세훈 시장〉

박유진 의원, 사전합의 의혹 제기
오세훈 시장 “걱정하지 마시라”

여의도 선착장 조성 사업 과정에서 서울시 행정의 공정성과 과정의 투명성이 무너졌다는 야당 서울시의원의 지적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나친 흠집내기”라고 맞서며 반박했다.

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은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여의도 선착장 조성 사업의 문제점으로 ▲공모 수준의 사전 합의 ▲사업이행보증서 제출기한

위반 ▲5차례, 총 10개월 연장된 완공일 ▲민간이 영구 소유할 수 있는 계약 ▲허위로 제출한 잔고증명서 ▲자본금 부족 ▲서울시의 거짓 해명 ▲안전도 떨어뜨리는 공법을 꼽았다.

우선 박 의원은 사업 제안서와 공모(公募) 지침서의 내용이 상당 부분 유사한 것을 두고 공모(共謀) 수준의 사전 합의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박 의원은 서울시와 사업 협약을 맺은 업체가 사업이행보증서를 당초 계약상 기한인 협약 체결일로부터 14일이내가 아닌 1년 5개월 뒤에 낸 것도 문

제 삼았다.

박 의원은 “민간이 투자해 20~30년 동안 운영한 뒤 투자금이 회수되면 서울시가 기부채납 받게 돼 있는데 여의도 선착장 조성 사업은 기부채납 방식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민의 안전을 걱정해주는 건 정말 고마운데 의원님이 말한 대로 (여의도 선착장이) 정말 황당무계한 안전 상태라면 흥수한 번만 나면 떠나려가겠다. 그러면 저 회사 망한다. 저 사람 파산한다. 걱정하지 말라”고 비꼬았다.

/김현정 기자 hjk1@

경기도, ‘문화의 날’ 통해 예술인-도민 연결

117개 단체 지원... 306회 공연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이 도내 문화예술인에게는 활동 기회를, 도민들에게는 각종 예술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도는 올해 117개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해 11월 현재 기준 총 306회 공연을 진행했다. 올해 나머지 기간 동안 51회가 진행될 예정으로 총 공연회수는 357회가 된다.

경기도는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2020년부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의 날로 지정해 경기도 전역에서 문화 행사를 펼치고 있다.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은 경기도 문화의 날에 도내 문화예술단체들이 공

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2년까지 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하는 매칭사업이었다가 지난해부터 경기도가 100% 지원하는 직접사업이 됐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총 189개 프로그램을 지원했고 지난해는 249개 단체, 올해는 117개 단체를 지원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올해 공연 사례를 살펴보면 분당원드 오케스트라는 지난 9월과 10월 경기도 문화의 날에 수원 광고호수공원과 제1야외음악당에서 클래식 공연을 펼쳤다.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클래식 공연을 야외에서 펼쳐 도민 누구나 클래식 음악을 즐길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경기=유진재 기자 yujin@

서울시

후불 기후동행카드 선택

교통비 절감과 생활 속 친환경 실천을 돕는 서울시의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에 신용·체크카드 기능이 더해진다.

서울시는 한 장의 카드로 일반 구매와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후불 기후동행카드’를 본격적으로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는 ▲신용·체크 카드결제 ▲자동차 청구 ▲충전·환불 없이 이용 등이다.

오는 25일부터 사전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 개시일은 30일이다.

/김현정 기자

서울교통공사 노조, 내달 6일 총파업 예고

구조조정 중단, 인력충원 등 요구
“위험하고 잘못된 정책 멈추자는 것”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인력 감축과 1인 승무제 도입 철화를 촉구하며 내달 6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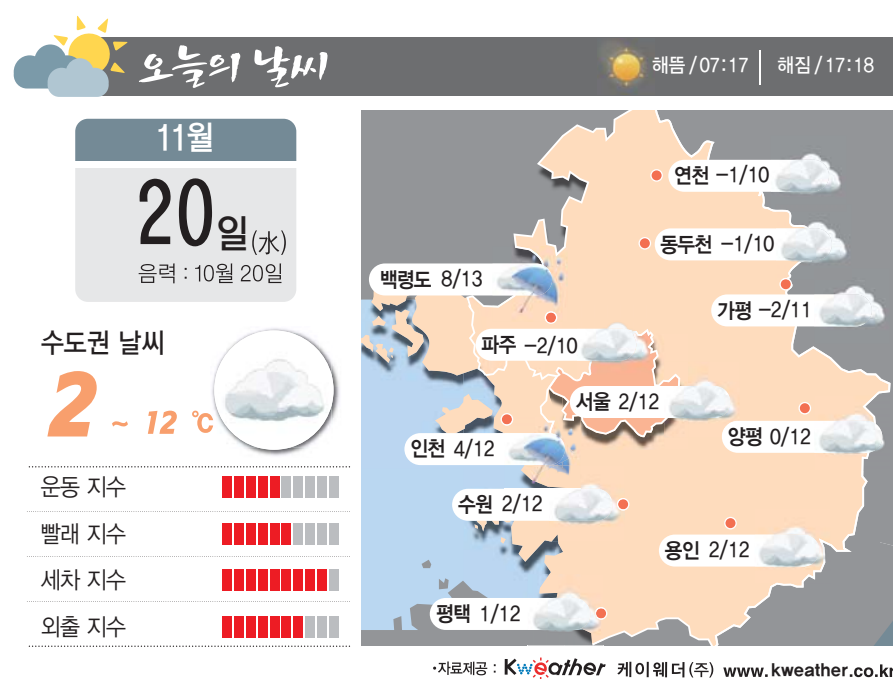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19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조조정 중단 ▲신규 인력 충원 ▲1인 승무제 도입 반대 ▲부당임금 삭감 해결 등을 요구하며 총력 투쟁 방침을 발표했다.

노조는 “우리의 투쟁 목적은 열차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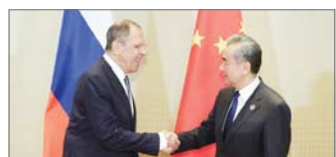
멈추는 게 아니라 위험하고 잘못된 정책을 멈추자는 것이다”며 “서울시나 사측이 대화와 성실 교섭에 응하지 않고 ‘노조 때리기’를 동원해 문제를 호도하거나 겁박과 탄압으로 일관한다면, 노동조합의 극한투쟁과 파업을 부채질하게 될 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노조는 다음달 6일 총파업 디데이까지 성실 교섭과 서울시, 공사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단체 행동을 확대하며 총력 투쟁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중·러 외무 회동서 “협력 강화”... 한 반도 정세도 논의 /사진 뉴시스
▲日방위상, 20일부터 라오스 방문...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참석

▲EU 외무장관들, ‘이스라엘과 외교 대화 중단’ 거부
▲우크라이나 외무 “러시아 본토 타격은 ‘게임체인저’ 될 것”



▲美 법무장관 후보 논란 가중... 여성 2명 “돈 받았다” 증언 /사진 뉴시스
▲“美 법무부, 법원에 ‘구글 크롬 매각’ 요구키로 결정”



주류업계
연말 특수 열전
한정판 등 올인
L1



Life

애슬레저 열풍
안다르·젝시믹스
3분기 호실적
L2



2024 뉴테크놀로지 포럼

초현실사회로 AGI가 재편하는 미래 생태계

2024년 11월 20일(수) 오후2시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주최 : metro · metro경제 후원 : 산업통상자원부

핵심기술 된 AI... 기업간 격차 줄이고 '원팀 코리아' 도약

인공지능 발전 가속화...AGI시대
기업·개인 성공 좌우하는 핵심요소
기술활용 격차, 낮은 투자비율 '속제'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이 가속화해 범용인공지능(AGI) 시대가 다가오며 AI가 기업과 개인의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AGI는 현재의 AI보다 발전된 형태로, 모든 조건에서 인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수준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의미한다. 오픈AI는 지난 7월, 향후 10년 내에 자사가 AGI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여전히 AI 기술 활용 격차와 낮은 국내 투자 비율은 한국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를 낳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 기업, 개인이 '원팀 코리아'로 협력해 AI 활용 능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9일 <메트로경제> 취재에 따르면 AI 기술 도입과 활용이 곧 기업의 성공과 개인의 성장을 끌어내며 전세계 AI 시장 규모가 급성장 하고 있다.

스타티스타(Statista)는올해 전세계 AI 시장 규모는 18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시장 연간성장률(CAGR 2024-2030)은 28.46%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오는 2030년에는 8267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예정이다.

AI 기술은 개인 수준에서도 급격히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 1년간 한국인 챗GPT 앱 사용자 수는 7배 이상 증가했으며 지난달 앱 사용자 수는 526만 명으로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 5120만 명 중 10%에 달했다. 1인당 월평균 사용시간도 51.6분으로 전년 동월 대비 약 20분 증가했으며 1인당 월평균 사용일수는 5.7일로 전년 동월 대비 2.4일 늘어났다.

실제 기술 도입을 통한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IDC의 분석에 따르면 AI 기술을 도입한 기업들은 투자한 1달러 당 평균 3.7배의 투자 수익률을 얻고 있으며 상위 그룹은 평균 10.3배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문제는 AI 기술 활용이 모든 기업과 개인에게 평등하지 못하다는 데 있다. 특히 우리 나라는 AI에 대한 투자 규모 또한 타 국가 대비 낮은 수준이어서 AI

활용의 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간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AI 투자 규모는 총 196조 원으로 그 중 미국이 62%, EU가 8%, 중국이 7%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투자 비율은 1% 기술력 대비 미미한 수준이다.

기업 내 AI 도입 또한 평균 수준을 하회한다. IDC 조사에 따르면 전세계 AI 기술을 도입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올해 75% 였다. 반면 ITWorld/CIO 조사에서 국내 기업은 10곳 중 4곳 수준만이 도입했거나 도입 중으로 나타났으며, 산업군별 큰 차이가 나타났다. 응답자의 85%는 "사업 경쟁력 유지 및 운영 혁신을 위한 조직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AI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지만 '구현 및 유지 관리(38%, 복수응답)', 'AI 결과물의 설명 가능성 및 투명성(36%)' 등을 AI 도입을 어렵게 하는 장애물로 꼽았다.

개인의 나이에 따른 디지털 격차도 크다. AI 기술 활용능력을 기업에서 중요시하면서 디지털 격차의 확대는 곧 생산 인구의 부족을 부를 수밖에 없다.

2024 뉴테크놀로지포럼 프로그램

시간	구분	프로그램
13:00~14:00	참가접수 및 등록 ※VIP티타임: 13:30~14:00	
14:00~14:10	축사	조봉연 한국 SW-ICT 총연합회장(메타빌드 대표)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14:10~14:40	기조강연	유성준 세종대학교 인공지능융합연구원장 :인공지능의 과거, 현재, 미래-우리의 대응
14:40~15:10		김득중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부원장 :생성형 AI 시대 강한 기업으로 성장하는 길
15:10~15:40	강연	김현배 딥파인 대표 :차세대 미래 기술XR 공간 컴퓨팅
15:40~16:10		하현석 큐빅 CTO :AI 혁신을 위한 미래 데이터:합성데이터
16:10~16:40		이근우 법무법인 화우 AI 센터장 :AI와 같이 살아가야 하는 시대... 활용과 노동시장의 문제

한국리서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39세가 42%로 가장 많고, 40~49세(30%), 50세 이상(24%) 순이다. 이들 중 70%는 주 1회 이상 AI 기반 소프트웨어·서비스를 이용하며 AI를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개인과 기업 모두 우리나라가 자체 인프라 데이터를 활용, 인터넷 강국이 되었던 만큼 주요 주체가 원팀이 돼

선도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윤상두네이버클라우드 AI랩 소장은 "국가나 기업이 자체 인프라·데이터를 활용해 독립적인 인공지능 역량을 구축하는 소버린 AI 경험을 바탕으로 AI 기술 기회를 창출하고 해외 진출을 도모해야 한다"며 "정부, 통신사, 대기업, 스타트업, AI 반도체 기업 등이 '원팀 코리아'로 뭉뚱물 뭉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유성준

세종대 인공지능융합연구원장



유성준 세종대학교 인공지능융합연구원장은 '인공지능의 과거, 현재, 미래-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선다.

과거 AI의 발전 초기 양상부터 현 대형언어모델(LLM)을 바탕으로 한 AI, 최종적으로 규칙을 창조하는 수준에 달할 AGI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살필 예정이다.

유 교수는 현재 세종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이자 인공지능융합연구원 원장으로 역임하고 있다.

김득중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원장



김득중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부원장은 '생성형 AI 시대 강한 기업으로 성장하는 길'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

챗GPT가 가져온 기술 빅뱅 이후 기업의 생성형 AI 도입은 각 기업별 도입방안에 따라 성공 유무가 크게 차이나고 있다. 김 부원장은 기업의 성공적인 AI 도입과 활용에 관한 해결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 부원장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AI산업본부장과 글로벌 ICT산업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김현배

딥파인 대표



김현배 딥파인 대표는 '차세대 미래 기술 XR 공간 컴퓨팅'을 주제로 강연한다. 김 대표는 XR 시장의 확장뿐 아니라, 가상과

현실이 통합되는 공간 컴퓨팅 환경이 점차 보편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XR 기술이 게임, 제조와 같은 특정 분야를 넘어 의료,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일반 대중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비용 구조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하현석

큐빅 CTO



하현석 큐빅 CTO는 'AI 혁신을 위한 미래 데이터:합성데이터'에 대해 강연한다. 하 CTO는 민감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대안으로 가상의 데이터인 '합성데이터'를 제시한다. 향후 10년 안에 합성데이터가 원본 데이터의 취약점을 보완해 완전히 대체할 것이라 역설한다. 하 CTO는 현재 합성데이터 관련 설루션 연구·개발을 총괄하며 향후 비전과 로드맵 수립하고 있다.

이근우

법무법인 화우 AI 센터장



이근우법무법인 화우 AI 센터장은 'AI와 같이 살아가야 하는 시대... 활용과 노동시장의 문제'에 대해 강연한다.

"인공지능(AI)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인간과 유사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지능을 갖춘 '범용 AI(AGI)' 출현이 멀지 않은 시대에 살며 그가 던진 의문이다. 이 센터장은 AI는 조력자이며 AI가 그 수준을 넘어 사람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선 안 된다고 정의한다.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벌금 2억' 벤틀쿠르, 손흥민에게 무슨 말 했길래 /사진 뉴시스
▲문체부, 체육계 낡은 관행 과감히 혁신... '불공정 관행 타파'

▲피츠버그 스킨스·양키스 힐, MLB 신인왕 등극
▲'전설' 이치로, MLB '명예의 전당' 만장일치 입성 도전



▲두산, 외국인 투수 토마스 해치 영입... '직구 최고 구속 154km'
▲'안یکا 드리븐 준우승' 임진희, 세계 랭킹 4계단 상승 /사진 뉴시스